碩士學位論文

# 濟州人의 渡航 硏究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韓 日 科

田 殷 子

2008年 2月

# 濟州人의 渡航 硏究

指導敎授 李 禮 安

田 殷 子

이 論文을 通譯飜譯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7年 12月

田殷子의 通譯飜譯學 碩士學位 論文을 確准함

審査委員長 _____ ㊞

委　　員 _____ ㊞

委　　員 _____ ㊞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2007年　12月

<국문초록>

# 濟州人의 渡航 硏究

전 은 자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한일과

지도교수 이 예 안

삼재(三災)의 섬으로 알려진 제주에서는 일찍부터 생존을 위한 도항이 시작되었다. 제주사람들은 어떻게든 궁여지책으로 삶을 위해 교역을 해야만 했고 노동력을 교환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었다. 일본이 제주에 가깝다는 것은 지리적인 측면만이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은 한반도 본토보다 선진적인 산업이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었으므로 제주사람들에게는 현금획득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노동시장이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수많은 제주사람들이 일본으로 도항하여 그 곳에 정착하기도 하고 귀향하기도 했다.

본 논문은 이미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제주사람들의 일본도항을 물밑에서 떠오르게 한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시작했다. 비록 실험적인 연구적 성격을 내포하고는 있지만 도항했다가 귀향한 조사대상자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도항을 했는지, 그들의 일본에서의 생활과 귀국한 후 제주에서의 생활상의 변화는 어떠했는지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나는 일본으로 도항했다 귀향한 제주사람들을 직접 만나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도항했다 귀향한 2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나 결과적으로 16명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그 가운데 일제강점기에 도항경험이 있는 8명을 '합법적 도항자(A그룹)'로, 해방 후에서 90년대에 걸쳐 도항경험이 있는 8명을 '비합법적 도항자(B그룹)'로 분류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제주사람들의 도항이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1차

세계대전의 세계정세에 의해 호황을 누리고 있던 일본이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취한 정책적 노동력 유인(誘引)이 있었다. 경제적인 궁핍으로 도항한 제주사람들에게 현금 소득의 효과는 더 많은 노동력을 재유인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면담을 통해서 A그룹의 도항자들은 이미 부모나 형제자매가 일본에 체재하고 있었으며 일본에서 직업을 갖고 있거나 유학중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A그룹은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도항했다기보다는 부모나 형제자매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다. 이에 비해 B그룹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가지고 도항을 했다. 그들은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으로 밀항하여 불법체류자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불심검문이나 밀고 등에 의해 체포돼 송환되지 않을 때까지 장기체류할 것을 목적으로 도항했다.

도항지로는 16명 중에서 12명이 오사카(大阪)이다. 이는 해방 전부터 상당수의 제주사람들이 오사카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 연고로 인해 많은 제주사람들이 오사카로 도항했기 때문이다. 즉 제주와 오사카 간에는 이미 해방 전부터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이를 통해서 원활한 커뮤니티가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A그룹이 부모형제를 매개로 하여 도항한 반면 B그룹은 브로커를 통해서 도항하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친인척과 연결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주로 밀항이라는 루트를 통해 도항한 B그룹이 일단 도항에 성공하게 되면 일본에 있는 친인척의 도움으로 숙소와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B그룹의 도항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부당한 근무조건 하에서 일을 했다. 같은 시간동안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일본사람이나 재일교포에 비해 저렴한 임금을 받았다. 아무리 억울해도 밀항자 신분으로는 드러내놓고 근로시간이나 실질임금의 부당성에 대해 항변을 할 수 없었고, 말없이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

A그룹은 학업과 선진문물 견학이라는 효과를 얻은 반면, 일본사람들의 '조선인 무시'에 대한 기억이 강하게 남아 있다. '비합법적 도항자'인 B그룹은 자녀교육비 마련, 주택마련 등 어느 정도 경제적 효과를 거둔 반면, 일본에서의 언어소통문제와 밀고문제로 시달림을 받았다. 언어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

되는 문제이지만 밀고는 도항해서 귀향할 때까지 늘 불안한 요소로서 그림자처럼 그들을 따라다녔다.

면담대상자 대부분은 재일제주인의 도움과 자신의 노력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귀향해서 A그룹은 농업, 상업에 종사하거나 정치인, 교사가 되어 제주사회에 공헌하며 살아왔다. B그룹 역시 농업, 상업, 관광업에 종사하거나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현재 사회봉사활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제주사회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노고는 오늘날 풍요로운 제주사회의 밑거름이 되었다. 도항은 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또한 제주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재일제주인의 제주에 대한 물적 기증과 일본에서의 도항자에 대한 협력은 제주와 재일제주인과의 연대 그리고 제주사람들과 재일제주인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해 왔다

도항은 오늘날 형태만 다를 뿐 여전히 선진문물을 동경하거나 환율이 높은 자본주의 시장으로 진출하는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 지금까지도 제주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보다 나은 일본으로 끊임없이 도항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원인이 작용하는 것이다.

# 목 차


머리말 ····· 1

Ⅰ. 조사과정 ····· 3

1. 조사방법 ····· 3

2. 면담대상자의 특성 ····· 6

Ⅱ. 도항의 정의와 분류 ····· 10

1. 도항의 정의 ····· 10

2. 도항의 분류 ····· 12

Ⅲ. 도항의 동기와 경로 ····· 15

1. 도항의 동기 ····· 15

2. 도항의 경로 ····· 18

Ⅳ. 일본생활 ····· 25

Ⅴ. 귀국과 정착 ····· 36

맺는 말 ····· 42

참고문헌 ····· 45

일본어초록 ····· 47

# 표 목 차

<표1>면담대상인 도항자의 인적사항(2007년 현재)····· 6

<표2>시기별 도항의 분류····· 12

<표3>비합법 도항의 경로와 알선비용····· 22

<표4>일본에서의 생활····· 25

JEJU NATIONAL UNIVERSITY · SINCE 1952 · 제주대

# 머 리 말

제주사람들의 많은 가정이 재일제주인 친인척을 두었거나 친구 내지는 지인(知人)이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일본으로 도항(渡航)[1] 했다 돌아온 H씨는 자신을 비롯해서 일본에 잠시 혹은 장기적으로 다녀온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고 증언했다. 그는 오히려 재일제주인 보다 일본으로 도항했다 정착하지 않고 돌아온 사람들의 수가 많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H씨의 증언을 뒷받침할 만한 연구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금까지 재일제주인에 관한 연구로는 강재언의「재일한인의 갈등과 도전」과 고선휘의「在日濟州島出身者の生活過程-關西地方を中心に」등이 있다. 그러나 일본으로 도항했다 정착하지 않고 돌아온 사람들에 관한 연구는 없다. 그들의 도항은 전적으로 각자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간주되어 표면화 되지 못하고 다만 그들의 기억 속에 내재해 있는 개인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항자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일본 사회에 대한 정보는 제주사람들에게 어렵지 않게 도항을 얘기하는 하나의 사회적 담론으로 형성되었다. 그것은 비록 역사적 기록으로는 정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인의 기억 속에 생생히 살아있는 또 하나의 삶인 것이다.

개인적인 기억은 본질적으로 파편적이고 무의식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만 그 기억이 가족, 사회, 국가와 같은 특정 집단 차원의 이익과 목적의식에 부합됨으로써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면 그것은 집단기억(collective memory) 혹은 사회기억(social memory)으로서 확장된다(김성례, 1999:247).

제주도(濟州島) 사람들의 일본 도항은 명치시대(明治時代)부터 시작되어,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기 전까지 그 빈도가 더욱 높아졌다. 그리고 해방 후에도 도항방법을 달리 하며 일본으로의 도항은 계속되어 왔다. 이렇듯 제주와 일본은 근대이후 다른 어느 나라, 혹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서로의 왕래가 빈번하였던 것이다. 본 논문은 이미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제주인의 일본으로의 도항에

1) 사전적 의미로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넌다'란 뜻이다. 그러나 나는 'Ⅱ장 1. 도항의 정의'에서 도항(渡航)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바다를 건너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본 논문에서 '도항'은 제주에서 일본으로 가는 것을 가리킨다.

초점을 맞추어, 제주사람들의 일본 도항을 물밑에서 떠오르게 한다는 점에서 시대적인 당위성이 있는 것에 의의를 두고 시작했다. 비록 실험적인 연구의 성격을 내포하고는 있지만 일본으로 도항했다가 귀향한 조사대상자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도항을 했는지, 그들의 일본에서의 생활과 귀국한 후 제주에서의 생활상의 변화는 어떠했는지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해방되기 전인 일제강점기의 합법적 도항과 해방 후부터 1990년대까지의 도항자 가운데 특히 밀항(密航)[2]으로 일본에 간 제주사람들과 비자를 받고 합법적으로 도항했으나 일본에 불법체류자로 남아 있다가 불심검문, 단속, 밀고 등에 의해 검거되어 강제귀환 한 제주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도항에 초점을 맞춰 면담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도항'이란 소재가 매우 개인적인 경험 중심이고 사회적 담론 자체가 밀항, 불법체류, 강제귀환 등의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또한 체면이나 사회적 이목을 중요시 여기는 한국적인 의식구조에서는 이런 주제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 특히 비교적 작은 공동체에 속하는 제주 사회에서 자신의 도항 경험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치지 않을까 우려한 까닭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도항자의 개인적인 경험의 채록이라는 점에서 면담자의 프라이버시를 훼손하지 않는 테크닉의 문제와 그들의 구술 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의 문제를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오로지 면담 구술에 의존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또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조사 작업은 장기간에 걸쳐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이번 조사는 제주인의 일본으로의 도항, 특히 밀항의 연구를 위한 초보단계에 머무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는 더욱 밀도를 더해서 연구할 수 있는 길을 남겨두고 있기도 하다.

---

2) 사전적 의미로는 '법적인 정식 절차를 밟지 않거나 운임을 내지 않고 배나 비행기로 몰래 외국에 나가는 것'을 뜻한다. 면담대상자 H씨는 "제주사람들의 일본으로의 밀항은 해방 이후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주가 되었으나, 4·3사건으로 인한 도피성 밀항자도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 Ⅰ. 조사과정

## 1. 조사방법

나는 일본으로 도항했다 돌아온 제주사람들을 직접 만나 면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면담조사는 2007년 4월~7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20명의 인터뷰를 마쳤으나 4명은 조사내용과는 상관없는 대화로 끝났기 때문에 자료로 쓸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16명을 면담대상자로 한정했다.

조사대상자 16명 중에서 면담할 때 6명은 흔쾌히 자택으로 오라고 했다. 나머지는 조사대상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식당에서 2명, 찻집에서 2명, 전시 장소에서 2명, 제주시청 어울림 마당에서 1명, 그리고 과거 도항의 현장이었던 바닷가에서 3명과 면담을 했다. 면담시간은 계획상으로는 연령을 감안하여 1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평균적으로 2시간~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이 면담과정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단독 인터뷰는 5명이었으며 나머지는 조사대상자의 가족이나 친구 등이 합석을 했다. 조사대상자의 연령범위는 2007년 현재 70세 이상으로 한정하려고 했다. 조사대상자를 70대 이상으로 한정지으려고 한 이유는 1945년생의 연령이 2007년 현재 만 62세이므로, 1945년 당시 연령이 적어도 만 8세 이상이 되어야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도항했던 부모의 기억 혹은 자신의 도항에 대한 기억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70대 이상의 조사대상자를 찾아보았으나 예상했던 것보다 많지 않았다. 그런 현실을 감안하여 70대 이하의 조사대상자도 4명을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가능한 한 70대 이상의 조사대상자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실제로 조사에 착수하고 보니 불법체류자인 경우는 70대 이하가 훨씬 많았다. 그리고 70대 이상의 일본도항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갖고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일괄리스트를 뽑아서 일부를 선정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결국 아는 분의 소개로 도항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를 만나기로 했다. 주위의

아는 분의 소개를 받아 내가 조사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면담 요청하는 방식을 취했으나 조사대상자들이 일제강점기를 거쳐 4·3사건 등을 겪은 세대라 그런지 좀처럼 조사에 응하려 하지 않았다. 또한 자신의 인생여정에 대해 말을 꺼내기조차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생활고로 인하여 도항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도항한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 자신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도항한 것이기 때문에 별로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자신만 특별히 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할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제와서 비참하기 그지없었던 지난날의 얘기는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반응이다. 이런 근저에는 비합법적 도항인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별별 일들을 다 겪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마치 어떤 치부를 들어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리고 혹시나 자신의 개인사가 노출되었을 경우 가족이나 자녀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먼저 아는 분의 소개를 통해서 도항 경험이 있는 사람을 다시 조사하여 직접 연락을 취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대상자의 증언이 학술적인 목적에 쓰일 뿐이고 면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누누이 설득해서야 면담조사를 할 수 있었다. 조사대상자와 이미 알고 지내던 경우에는 그나마 경계심이 덜하여 면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전혀 알지 못했던 대상자의 경우는 만나기까지의 과정이 어려웠다. 면담협력자[3]로부터 전화로 면담조사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부탁한 다음 내가 다시 전화로 재차 취지를 설명하고 조사대상자가 원하는 장소를 정해 만나기로 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러나 만나기로 약속까지 해놓은 조사대상자가 막상 약속날짜가 임박해지면 약속을 취소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어렵게 조사대상자와 만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면 무슨 조사를 받는 느낌이라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은 자신의 신분과 프라이버시가 노출되는 것을 꺼려했다. 특히 얼굴이 노출되는 사진 찍기를 거부했고 녹음기를 준비해 갔으나 대개 녹취를 하지 말라고 하여 조사대상자의 반

3) 면담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자를 소개해준 사람을 편의상 '면담협력자'라 하였다.

이상은 필기에 의존해야 했다. 그럴 때는 주로 조사대상자가 말하는 것을 듣는 것에 그쳐야했다. 조사대상자를 중심으로 대화가 전개되다 보니 논문과는 상관없는 내용들을 듣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어떤 때는 면담자의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돌아올 때도 있었다. 그럴 때는 사람 만나는 것 그 자체가 두려워 한동안 면담조사를 쉬어야만 했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질문요지를 간단히 메모하여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알고자 했던 마음을 접었다.

면담 예정인원의 반 정도의 인터뷰를 진행하던 도중에 도항했다 돌아와 현재 관광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H씨로부터 제주의 관광업계에도 도항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그리고 제주도 ○○협회 안내원 55명은 100%가 도항자(밀항자)라는 말도 듣게 되었다. 그 도항자들을 조사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인터뷰할 사람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단 한 명도 면담할 수가 없었다. 결국 처음으로 돌아가 개인소개를 받아 면담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사람을 소개받기가 쉽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5명 중에 한 사람은 면담조사에 응해 주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는 분의 소개를 받았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면담했던 사람의 소개로 새로운 면담자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났다. 그런 경우에는 면담하기가 훨씬 수월했다. 거기에다 소개자가 합석을 하게 되면 경계심도 덜하고 단독으로 면담할 때보다 공통화제가 풍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점에 착안하여 여름철 농한기를 이용하여 각 마을의 쉼터와 노인 회관, 해녀들이 모여 있는 곳 등을 직접 찾아 나섰다. 이런 경우 누구 하나가 이야기를 꺼내면 덩달아 이야기를 하고 대화가 끊기게 되면 동시에 모두 입을 다무는 바람에 산만해지기도 했지만 단독으로 면담할 때보다 서로의 기억을 되살려 주는 장점도 있었다.

면담이 끝난 후에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자 “별것도 아닌 것을 이렇게 귀하게 생각해주고 우리의 입장을 이해해 주니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다”고 했다. 어떤 면담대상자는 “언젠가 나를 비롯한 도항자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었다”라는 말을 남기며 그 일을 대신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또는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고생도 안하고 부모들

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어 안타깝다"고도 했다. 도항자 특히 밀항자들의 삶 자체가 목숨을 건 도전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조사대상자 대부분은 상당히 예의바른 모습을 보여 주었으며 도항해서 옆에서 지켜본 일본사람들로부터 배울 점은 정직과 친절 그리고 성실함이라고 했다.

## 2. 면담대상자의 특성

**<표1> 면담대상자인 도항자의 인적사항(2007년 현재)**

| 번호 | 성별 | 이름 | 출생년도 | 도항년도 | 출신지 | 도항지 | 일본체류기간 | 직업 | | |
|---|---|---|---|---|---|---|---|---|---|---|
| | | | | | | | | 도항 전 | 일본에서 | 귀향 후 |
| A1 | 남 | 김○○ | 1919 | 1929 | 와흘 | 시가현 | 6년 | 서당에 다님 | 초등학생[4] | 농업 |
| A2 | 남 | 김○○ | 1923 | 1930 | 조천 | 오사카 | 5년 | 취학 전 | 초등학생 졸업 | 농업 |
| A3 | 여 | 문○ | 1922 | 1933 | 모슬포 | 오사카 | 4~5년 | 초등학생 | 초등학생(제주) | 상업 |
| A4 | 여 | 진○○ | 1922 | 1935 | 제주시 | 오사카 | 17년 | 무직 | 슬리퍼 공장 | 심방[5] |
| A5 | 남 | 양○○ | 1936 | 1941 | 서귀포 | 오사카 | 1~2년 | 미취학하동 | 미취학아동 | 정치인 |
| A6 | 남 | 고○○ | 1931 | 1941 | 영락리 | 오사카 | 6년 | 초등학생 | 초등학생 | 농업 |
| A7 | 남 | 현○○ | 1923 | 1938 | 서귀포 | 나고야 | 8년 | 초등학생 | 유학생 | 초등학교 교사 |
| A8 | 여 | 이○○ | 1926 | 1938 | 외도 | 오사카 | 7년 | 초등학생 | 주물공장 | 상업 |
| B1 | 남 | 고○○ | 1925 | 1965 | 모슬포 | 오사카 | 12년 | 농업 | 고무공장 | 상업 |
| B2 | 남 | 고○○ | 1928 | 1965 | 한림읍 | 오사카 | 13년 | 어업 | 제화공 | 농업 |
| B3 | 남 | 송○○ | 1930 | 1971 | 제주시 | 오사카 | 28년 | 공무원 | 파칭코 | 무직 |
| B4 | 남 | 홍○○ | 1946 | 1972 | 김녕 | 오사카 | 6년 | 회사원 | 구두공장 | 관광업 |
| B5 | 남 | 황○○ | 1946 | 1972 | 김녕 | 오사카 | 9년 | 농업 | 미싱일 | 상업 |
| B6 | 여 | 박○○ | 1932 | 1981 | 화순 | 도쿄 | 5년 | 무직 | 식당 | 무직 |
| B7 | 남 | 신○○ | 1940 | 1984 | 구억리 | 오사카 | 1년 | 농업 | 고무공 | 농업 |
| B8 | 여 | 고○○ | 1962 | 1990 | 제주시 | 요코하마 | 9년 | 미용업 | 미용업 | 무직 |

4) 면담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자들은 '소학교', '보통학교', '국민학교', '초등학교' 등의 용어를 사용했으나. 나는 논문에서 이것을 '초등학교'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초등학교 학생도 '초등학생'으로 한다.
5) 제주의 '무당'을 말한다.

면담대상자 16명 중에서 해방 전의 합법적 도항자가 8명, 해방 후부터 90년대까지의 비합법적 도항자가 8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11명이고 여자가 5명으로 남자가 2배가량 많다. 여기에서는 해방 전 합법적 도항자를 A로, 해방 후의 도항자들 가운데 면담대상자는 모두 비합법적 도항자였으므로 B로 분류하였다.

위 <표1>에서 A그룹은 일제강점기의 합법적 도항자이며 B그룹은 비합법적 도항자 즉 밀항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A그룹은 도항 당시의 평균연령이 약 10세로 평균연령이 약 36세인 B그룹에 비해 도항 당시의 나이가 어리고 체류기간이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그룹의 경우 A4[6]를 제외하고 나면 평균체류기간이 6년 이하이고 B그룹의 경우 B7[7]을 제외하고 나면 평균체류기간이 11년이다. A그룹은 A4를 제외하고 나면 모두가 도항 전에는 취학 전 아동이었거나 초등학생이었다. 그들은 도항해서도 거의 초등학생으로서 학업을 계속했으며 귀향해서는 3명이 농업, 2명이 상업에 종사했고 나머지는 각각 정치인, 교사, 심방이 되었다. B그룹은 도항 전에는 3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5명은 각기 다른 직업을 갖고 있었다. 도항해서는 B8[8]만이 도항 전과 같은 일을 했으며 나머지는 모두 도항 전과는 다른 일에 종사했다. 귀항해서의 직업을 살펴보게 되면 상업이 2명, 농업이 2명, 관광업이 1명, 무직이 3명으로 나타났다. B6과 B7 이외에는 모두 도항 후에 제주에서의 직업이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면담을 통해서 A그룹의 도항자들은 이미 부모나 형제자매가 일본에 체류하고 있었으며 일본에서 일정정도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A그룹의 경우 유학을 간 A7 이외에는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도항했다기 보다 부모나 형제자매의 권유에 의해 일본을 가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비해 B그룹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가지고 도항을 했다. 그들은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으로 밀항하여 불법체류자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불심검문이나 밀고 등에 의해

6) A4의 일본체류기간 '17년'이란 실제로는 심방으로서의 '일본왕래기간'에 해당된다. 시기는 대략 1982~1999년까지이다. '일본체류기간'으로 분류한 것은 인터뷰를 통해서 그 기간 동안은 제주에서 보다 일본에서 거주한 기간이 길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1935년에 첫 번째 도항을 했으나 몸이 아파 1~2년 만에 귀향했다.

7) 브로커가 만들어준 여권을 소지하고 도항했다가 불법체류자로 남은 경우인데, 이번 조사대상자 가운데 도항해서 1년 만에 밀고를 당한 특별한 케이스이다.

8) B8은 도항 전부터 일본에서의 직업을 계획하고 도항한 케이스이다.

체포돼 송환되지 않을 때까지 장기체류할 것을 목적으로 도항했다. B그룹 중에서 B1, B2, B5, B6은 1~5년 간격을 두고 부부가 모두 밀항한 경우이다. 실제로 그 당시에 부부가 1~2년 간격을 두고 함께 밀항해온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미 자녀가 있을 때에는 그 자녀를 제주에 두고 도항을 했다. 제주에 남아있는 자녀는 친인척이 돌봐주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의 도움을 받았다. 교통수단으로는 A그룹은 도항 시와 귀향 시에 모두 배[9]를 이용하였고 B그룹의 경우는 도항할 때 B1~B5는 배를, B6~B8은 비행기를 이용했고 귀향할 때는 모두 비행기를 이용하였다.

도항지로는 A1, A7, B6, B8을 제외하고 나면 모두 오사카(大阪)이다. 이는 해방 전부터 상당수의 제주사람들이 오사카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 연고로 인해 많은 제주사람들이 오사카로 도항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제주와 오사카 간에는 이미 해방 전부터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이를 통해서 원활한 커뮤니티가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문경수(2001)에 의하면 오사카 거주 한국인 가운데 제주도 출신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20년대에 30~40%, 30년대에는 20~30%로 추정되고 숫자상으로 '오사카 거주 한국인' 중에서 경상남도 출신자와 함께 쌍벽을 이루었다고 한다. 1922년 오사카에 도항한 제주인도 1년에 3,500명 수준에서 3만여 명 수준까지 증가되었고 재일 제주인은 1만여 명에서 5만여 명으로 늘어나 1933년에는 제주도 인구의 4분의 1이 일본에 있게 되는 지경에 이른다. 같은 오사카에 살면서도 제주도 출신자는 다른 지역출신자와 거주지역이나 직업, 생활 형태를 달리하는 경향이 있다. 남자는 직공, 여자는 방직공이 그 당시 제주도 출신자들의 대표적인 직업이었다. 이들 직업은 토목이나 건축에 종사하는 경우보다 정착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정주화(定住化)는 공동체 형성의 기초이기도 했다. 30년대 중반 이후에는 오사카를 중심으로 제주도 출신자들의 확고한 공동체가 뿌리 내리고 한·일간의 경계를 넘어 제주도민들의 생활권의 일부가 되었다. 또한 이 공동체는 4·3사건을 전후하는 시기에는 제주도에서 건너온 밀항자들의 피신처가 되기도 했다. 4·3사건을 전후하는 시기에 대략 5,000~10,000여명의 제주인이 일본에 밀항한 것으로

9)본 논문 Ⅳ의 '3. 도항의 경로'에서 배의 종류 등을 참조바람.

짐작된다. 외국인 통계가 정비된 1953년의 재일 한국인의 수는 55만 6천명으로서 그 중 제주도 출신자는 약 6만 4천명이었다. 그런데 1959년 4월 시점에서 재일 한국인의 수는 60만 7천명으로 약 9%가 증가한데 비해 제주도 출신자는 8만5천명으로 약 33%(2만천명)의 증가추세를 보여 전체 인구증가율보다 24%나 초과했다. 이 8만5천명에 이르는 재일제주인 가운데 5만5천명이 오사카에 살고 밀항자의 대다수도 오사카에 기반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4·3사건 이후 1950년대에 걸쳐 제주도 인구의 4분의 1에서 5분의 1이나 되는 제주사람들이 일본에 살고 있었던 셈이므로 4·3사건의 진상규명도 일본에서의 실태 파악 없이는 완결되지 못할 것이다(문경수, 2001).

JEJU NATIONAL UNIVERSITY · SINCE 1952 · 제주대

# Ⅲ. 도항의 정의와 분류

## 1. 도항의 정의

도항(渡航)이라는 말은 이미 중국 양서(梁書)에 '20만의 무리들이 외치면서 싸움을 하기 위해 바다를 건넜다(衆號二十萬**渡航**請戰)'라는 기록에서 살필 수 있다(張三植, 1988:1040). 그리고 조선시대 유학자인 이락정(二樂亭) 신용개(申用漑, 1463~1519)의『이락정집(二樂亭集)』가운데 4언 율시「次蕭海釣和謝祭酒韻」에 '날이 저물어 바다를 건너듯 들판을 가로지르지 못했네(日暮虛橫野**渡航**)'라는 시[10]에서 보듯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넘'이라는 뜻을 가진 '도항'이란 용어는 일찍부터 사용되어 왔으나 자주 쓰이지는 않은 듯하다. 오히려『조선왕조실록』에서는 단순히 '바다를 건넌다'는 뜻의 **도해(渡海)**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다. 또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간다'는 뜻의 **출륙(出陸)**이라는 말 또한 조선시대에 쓰던 도항에 버금가는 주요 용어였다.

1930년대 후반의 제주도 풍속을 정리한 일본인 이즈미 세이치(泉靖一)의『제주도(濟州島)』에는 '제주도에서 일본으로 **도항(渡航)**한 사람은.....',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석주명(石宙明)의 『제주도 수필(濟州島隨筆)』에는 '오사카와 제주 간 직접항로가 개시되어 **도항자(渡航者)**가 격증하여.....' 제주도 당국자가「제주도일본도항자조합」을 결성하여 '**도항증(渡航證)**'을 1장에 1원에 판매하여 연간 수입이 1만 2천 여원에 이르렀다고 1927년 5월 17일 동아일보 기사를 소개하고 있다(석주명, 1968:188).

사실 조선말기가 되면 도항이라는 용어는 이미 정착되어 열강에 둘러싸인 조선을 출입하는 외국인들의 도항자(渡航者) 수를 파악하는 등 보다 본격적으로 쓰여 지기도 했다.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자를 감시하는 일경(日警)의 보고자료에서 도항자의 수와 도항 목적, 도항 기간 등을 적은 공식문서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체로 도항이라는 말은 근대 이후에 개념이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한

10) 申用漑, 「二樂亭集」

국과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시대적으로 재정립된 사회현상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비행기가 등장하기 이전에 일본으로 간다는 의미를 도항이라고 한 것을 보면 배를 교통수단으로 할 때 정립된 용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비행기가 등장한 현재에는 도항이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않지만 합법적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불법체류자가 된 사실을 말할 때 '밀항' 갔다 왔다고 한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도항의 수단이 배를 타고 건너는 도항에서 배와 비행기를 타고 도항하는 것으로 확대된 것이다. 일제강점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노동시장으로 노동력을 팔러갔다. 징용이나 징병에 의한 강제적 도항과 4·3사건에 의한 도피성 도항은 목숨이 걸린 도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와 해방 공간[11], 한국전쟁,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12] 등의 시대 상황은 도항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 일제강점기에 도항증을 발급받아 일정 기간 일본에 체류하면서 노동을 하다 돌아오는 도항은 해방 후부터 그 성격이 달라진다. 해방 후 일본으로부터 많은 재일한국인들이 본국으로 송환되었고 그 송환자들이 다시 국내 정치·경제 사정 등으로 일본으로 재도항하기 위해서 밀항으로 변해버린 도항이 있다. 1965년대 이후에는 합법적으로 여행 비자를 발급 받아 도항했지만 그곳에 머무르며 돈을 벌기 위해 불법체류자로 남아 있는 도항이 있다. 제주에 귀향할 목적으로 적어도 3년~5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을 목표로 불법체류하거나, 아예 그 곳에 정착하기 위해 혼인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일점강점기의 합법적 도항의 현실과는 다르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도항(渡航)이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넘'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섬에서 대륙으로 혹은 섬과 섬으로 다시 대륙에서 섬으로 이어주는 뱃길을 지칭하는 말로 바다를 건너는 배를 도항선(渡航船)이라고 한다. 지금도 모슬포항에서 가파도나 마라도를 연결해주거나 성산포항에서 우도를 연결해주는 배를 '도항선'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단순하게 도항이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넘'이라는 뜻으

11) '해방공간'이란 대략 1945년~1948년까지를 말하는데,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했지만 아직까지 독립정부를 구성하지 못하고 미군정의 치하에 있던 시기이다.

12) 한일회담을 추진한 결과 1965년 6월 22일 한·일 양국정부는 14년 동안 끌어온 국교정상화교섭을 마무리 짓고, 한국의 외무장관 이동원(李東元), 한일회담 수석대표 김동조(金東祚)와 일본 외무장관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悦三郎], 수석대표 다카스기 신이치[高杉晉一] 사이에 조인되었다. 흔히 '한일협정'이라고도 한다.

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도항에는 개인적인 목적은 물론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 바다를 건너야하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국어사전[13]에는 도항이란 '배나 항공기를 타고 바다를 건넘', 혹은 '해외로 나감'[14]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또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도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도항'이라는 용어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일찍부터 사용되어 왔으나 그에 대한 정의가 따로 없으므로 나는 여기에서 도항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바다를 건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도항은 제주에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것을 가리킨다. 나는 도항을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의 이동이라기보다는 바다를 사이에 둔 어느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으로 인식한다.

## 2. 도항의 분류

**<표2> 시기별 도항의 분류**

| 시 기 | 도 항 형 태 | 체 류 형 태 | 면담대상자 수 |
|---|---|---|---|
| 일제강점기 | 합법적 도항 | 합법체류 | 8 |
| 1945년~1965년 | 비합법적 도항(밀항) | 불법체류 | 2 |
| 1965년 이후 | 합법적 도항 | 불법체류 | 3 |
| | 비합법적 도항(밀항) | 불법체류 | 3 |

위 <표2>와 같이 제주사람들의 도항을 크게 합법적 도항과 비합법적 도항[15]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합법적 도항은 해방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제주~일본간 정기여객선을 이용한 도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비합법적 도항'은 '밀항(密航)'을 말하는 것으로, 밀항은 해방 후부터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된 1965년까지의 도항방법을 말한다. 1965년 이후를 다시 합법적 도항과 비합법적 도항으

13) 新村出/編 (1998), 「廣辭苑」第5版、岩波書店。
14) 상게서에 실린 도항에 대한 일본어 원문은 ′船や航空機で海をわたること′、′海外へ行くこと′이다.
15) 조사대상자 16명 중 8명은 해방 전에 정식 루트를 통해서 도항했다 돌아온 경우이므로 이를 합법적 도항이라 했다. 나머지 8명은 해방 후에 비합법적(밀항)·합법적 도항을 하여 모두 불법체류자로 남은 경우이므로 이를 모두 비합법적 도항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로 분류할 수 있다. 나는 1965년 이후 제주사람들의 도항 중에서 합법적 도항을 했으나 불법체류자로 남은 경우를 비합법적 도항의 범주에 같이 포함시키고자 한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은 도항의 형태에도 영향을 미쳤다. 1955년 재일한국인들은 '출입국관리령' 제24조의 '강제퇴거' 조항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었는데 '한일기본조약' 체결 이후 강제송환자가 특히 증가했다. 1950년~1980년 6월까지 강제 퇴거 조치로 송환 처분을 받은 외국인은 46,089명인데 그 가운데 재일한국인의 수는 33,864명으로 전체 74%를 차지하고 있다. 강제퇴거의 이유로는 불법 입국, 재류 자격 외 활동, 일본이나 지방공공단체에 부담이 되고 있는 사람, 법령위반자, 치안 교란자 등이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단연 불법입국자로서 1950년~1980년 사이에 오무라(大村) 수용소로부터 19,962명이 한국으로 집단 송환을 당하였다(이기완, 2006:300-301). 즉 한일기본조약 이전까지는 '도항'이 비합법적인 양상을 보이지만 한일기본조약 이후에는 여권을 소지하고 합법적으로 도항하여 일본에서 불법체류하는 형태로 점차 바뀌고 있는 것은 매우 특기할 만한 일이다. 또한 체류기간을 활용하여 빈번히 여권을 재 발급받아 일본으로 재도항하는 사례를 간과할 수도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정리한 용어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합법적 도항'이란 법적으로 정해진 체류기간을 마치고 제주로 돌아오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도항증을 발급받아 일본에서 일정기간 임금노동[16] 등을 하고, 일제강점기에 제주와 일본 등지에서 운행되었던 군대환(君代丸)[17], 복목환(伏木丸) 등의 정기여객선을 타고 제주로 다시 귀향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합법적 도항이라고 하지만 국권이 상실된 일제강점기 시기의 식민지 법에 부합하는 도항이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비합법적 도항'이란 불법적인 도항을 뜻한다. 이는 다른 말로 '밀항'이라고 한다. 밀항에도 운임을 내지 않고 배에 몰래 숨어서 국경을 넘는 경우가 있고, 많은 액수의 밀항 경비를 지불하여 여러 경로를 통해 대형 화물선이나 소형선박

16) 조사대상자 가운데 A그룹은 대부분 임금노동 등을 위해 도일한 가족 등의 방문을 위해 도항한 경우이다.

17) '군대환(君代丸)'은 일본발음으로 '기미가요마루'이다. 조사대상자에 따라 '군대환' 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기미가요마루'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여기에서는 '군대환'으로 통일하여 표기하기로 한다. 앞으로 나오게 되는 배이름도 마찬가지로 한국어 발음으로 표기하기로 했다.

에 숨어서 가는 경우가 있다.

‘불법체류자’ 란 합법적 혹은 비합법적으로 도항했다가 체류기간이 지나도 제때에 돌아오지 않고 현지에 머물러[18] 있는 경우를 말한다. 불법체류자는 다시 목적지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밀항자와 처음부터 불법체류 할 목적으로 합법적 절차를 거쳐 도항하여 체류기간을 넘기는 경우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제주사람들이 불법체류자로 장기간 남을 수 있는 것은 가족이나 친인척 등의 연고자가 일본 곳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JEJU NATIONAL UNIVERSITY · SINCE 1952 · 제주대

18) 제주의 도항자들은 불법체류를 ‘곱은다’ ‘숨는다’ ‘비자 꺾는다’ ‘패스포트 엎은다’라고 한다.

# Ⅲ . 도항의 동기와 경로

## 1. 도항의 동기

제주사람들의 도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작된다. 과거로부터 삼재(三災)[19]의 섬으로 알려진 척박한 섬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제주사람들의 관심은 늘 밖으로 향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해산물의 보고(寶庫)였던 제주도(濟州島)에서는 전복이나 소라 등을 함부로 채취하지 않았으나 일제강점기에 잠수기어법(潛水器漁法)이 등장하면서 계속되는 잠수기선의 강제 어획으로 제주어장은 급속하게 황폐화 되어 갔다. 급기야 이런 현상은 제주해녀의 출가(出嫁)[20]로 이어지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마스다 이치지[21](桝田一二, 1976)에 의하면 일본에서 제주 해녀의 출가지로 가장 오래된 곳은 도쿄부(東京府)의 미야케지마(三宅島)로 1903년 제주도 김녕의 사공 김병선(金丙先)씨가 해녀 여러 명을 데리고 출가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제주사람들의 일본 공업계의 출가는 1911년부터 오사카의 방적업계 사무원이 직공모집을 위해 내도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루어졌고 그 때부터 근대 공업노동자로서 제주사람들의 일본도항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지자 당국마저도 묵인할 수가 없어서 1918년 2월에는 조선총독부령 '노동자모집취체규칙(勞動者募集取締規則)'을 공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강재언, 2005:182). 이로써 소위 식민지법에 의한 합법적인 도항이 시작된 것이다. 물론 도항의 다른 원인으로는 일본의 토지조사사업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p6 **<표1>**의 A그룹의 도항 동기는 이미 부모나 형제자매가 도항을 해서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가거나, 형제자매의 권

19) 삼재(三災)란 한재(旱災), 수재(水災), 풍재(風災)를 말한다.
20) 출가(出嫁)란 일정 기간, 집을 떠나 타관・타국에 가서 돈벌이를 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자는 출가를 도항사(渡航史)적 관점으로 재해석하여 사용한다.
21) 「제주도의 지리학적 연구」를 번역한 홍성목은 저자 '桝田一二'를 '마수다 이치지'로 표기했으나, 나는 최근의 '일본어 한글표기법'에 따라 '마스다 이치지'로 표기한다. 단, 참고문헌에서는 홍성목의 표기법대로 '마수다 이치지'로 소개한다.

유에 따른 것이다. 그 당시 이미 도항해 있던 A그룹 부모나 형제자매 등의 직업과 관련해서 A도항자의 도항 동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1은 조부모가 도항을 하여 기름공장을 하고 있었으므로 일본에서 학교교육을 받기 위해 도항을 하게 되었으며, A2는 부친이 군대환의 보이[22]로 일하고 있었으므로 일본에서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A4는 언니가 있어서, A5는 부친이 일본 유학생[23]이었으므로 5살 때 부친을 만나기 위해 도항한 경우이다. A6은 A6이 3세 때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간 모친[24]이 10세가 되도록 귀향하지 않자 부친과 함께 모친을 찾아 나섰다. 조사대상자 중에서 A7은 일본 유학생이었던 형의 권유로 유학을 간 유일한 케이스이다. A3과 A8은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혹은 친척들이 상당수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던 관계로 어른들을 따라 일본을 빈번히 드나들었다. A그룹은 남자가 5명, 여자가 3명인데 다 같이 도항을 했으나 남자는 일본에서 모두 초등교육을 받았고 여자인 경우는 모두 일본에서 학교교육을 받지 않았다. 인터뷰 과정에서도 화제가 되었는데 교육에 있어서 남녀 간의 불평등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일제강점기에 제주사람들의 도항이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1차 세계대전의 세계정세에 의해 호황을 누리고 있던 일본이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취한 정책적 노동력 유인(誘引)이 있었다. 경제적인 궁핍으로 도항한 제주사람들에게 현금 소득의 효과는 더 많은 노동력을 재유인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한때 3엔까지 내려갔던 제주~오사카 간 선박 운임도 도항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오사카에 미리 정착한 친인척, 혹은 동향인이나 선배 등의 연고가 있어 심리적으로 안심하고 도항할 수 있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공제회 조합에 의한 직업의 안정적인 보장 또한 일본 도항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A의 부모와 친인척의 도항으로 이어졌고 나아가 A의 도항으로 연결되었다. 이런 도항자들의 계속적인 관계는 표면화 되지는 않았지만 거대한 도항의 역사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

22) 선원을 이르는 말로, 당시 군대환을 타게 되면 '보이'라는 말을 많이 썼다고 한다.
23) A5의 부친 그 당시 일본의 '입명관대학(立命館大學)'의 유학생이었다고 한다.
24) 그의 모친은 '방직공장'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p6 <표1>의 B그룹은 A그룹과는 달리 본인의 의지에 따라 거의가 돈을 벌기 위해 도항했으며 이들 중 부부가 함께[25] 도항한 경우도 무려 4명(B1, B2, B4, B5)[26]이나 된다. B4는 누나가 부산 영도[27]에 살고 있어서 영도를 자주 드나들었는데 일본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면서 일본을 동경하게 되었다. 어느 날 영도에 출장을 갔는데 일본으로 가기로 한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자리가 비어있는데다 밀항 비용도 당장 필요 없으니 나중에 돈 벌어 갚아도 된다고 하여 갑자기 도항하게 되었다. 일본에 가서 일본어를 배우고 오겠다고 결심을 하고 갔다. B3은 공무원 생활을 청산하고, B8은 이미 직업을 정해놓고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하여 도항을 한 경우이다. B7은 1차 밀항을 시도했다 실패하고 다시 2차 때 브로커가 만들어준 여권을 가지고 도항한 경우이다.

다음은 B그룹의 인터뷰 내용이다.

B1 생활이 곤란한 상태에서 6남매를 교육 시킬 일이 까마득했기 때문에 밀항을 결심하게 되었다. 어느 곳이든 돈벌이가 되는 곳을 찾아가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싶었다. 당시 제주에는 일자리가 매우 귀했는데, 도항해 보니 그곳에는 일자리가 많았다.

B2 결혼 전 생활이 어려운데 제주에는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강원도로 가기 위해 부산 영도에 머물게 되었다. 그곳에서 잠시 방황하는 도중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하였다. 아내와 함께 강원도에서 오징어잡이를 하면서 생활했다. 오징어 철이 지나면 다른 사람들은 고향으로 가는데, 우리는 고향으로 가도 살길이 막막하여 돌아갈 수가 없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강원도 '어달리'라는 곳에 머무르면서 오징어를 잡고, 아내는 오징어 말리는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나 강원도에서의 생활도 여의치 않자 23살에 고향 제주로 내려왔는데, 공교롭게도 4·3사건을 겪게 되었다. 혼란의 와중에 경찰이 되었으나 월급도 작은데다, 그것마저도 제 때에 나오지 않아 어려운 생활을 이어나가다가 결국 일본으로 밀항을 하게 되었다.

---

25) 실제로 두 부부가 동시에 도항을 한 경우는 없고,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도항을 하고 1~5년 후에 다른 한 명도 도항을 했다. 도항 방법이 밀항이기 때문에 위험성, 밀항비용 등을 생각하면 부부가 동시에 갈 수 없었다.

26) B1이 도항하고 5년 후에 그의 아내도 도항, B2가 도항하기 3년 전에 그의 아내가 먼저 도항, B4가 먼저 도항하고 1년 후에 그의 아내도 도항, B5가 도항하기 1년 전에 그의 아내가 먼저 도항해 있었다.

27) 당시 영도에는 일자리를 찾아 나선 제주사람들로 북적거렸다고 한다.

B5 1930년대 초반 도항한 중부(仲父)가 일본에 살고 있었는데 그 중부가 위독하게 되자 아버지의 부탁으로 도항하게 되었다. 중부는 나병[28](문둥병, 한센병:Hansen's disease이라고도 함)에 걸렸다고 한다. 중부는 와카야마(和歌山)에서 가까운 어느 섬에서 돌아가셨고 화장하여 그의 유언에 따라 김녕 공동묘지에 모셔졌다.

B7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도항하려고 했으나 첫 번째 도항은 시도로 그치고 말았다. 1973년 과수원 판돈 20만~30만원을 가지고 부산으로 갔는데 마침 김대중 납치사건이 터져 부산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그곳에 두 달간 머물면서 가지고 간 돈을 모두 써버리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1984년에는 브로커가 만들어준 여권을 가지고 다시 도항했다.

B8 갑자기 가장의 역할을 하게 되자 집안 대사를 돌아보는 것이 힘에 겨웠고, 집안 살림살이도 힘이 들 때에 마침 아는 사람으로부터 일본 요코하마에서 클럽을 크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소개 받아 그 곳의 여성들을 상대로 미용업을 하기 위해 도항하였다.

p6 **<표1>**의 A그룹이 가족이나 친척을 매개로 하여 도항한 반면, B그룹은 브로커를 통해서 도항하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친인척과 연결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B그룹이 주로 밀항이라는 루트를 통해 도항했으므로 법적인 문제 등 시대 정황으로 볼 때 일본 거주 친인척이 표면에 나서서 도와주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일단 B그룹이 도항에 성공하게 되면 일본에 있는 친인척의 도움으로 숙소와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

제주사람들은 어떻게든 궁여지책으로 삶을 위해 교역을 해야만 했고 노동력을 교환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었다. 일본이 제주에 가깝다는 것은 지리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에는 재일제주인 친인척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과 한반도 본토보다 선진적인 산업이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는 일본의 노동시장이었기 때문이다.

## 2. 도항의 경로

28) 마스다 이치지(桝田一二)에 의하면, 도항자들의 나쁜 영향으로는 제주의 노동력 부족과 경제지상주의, 계급사상의 전파와 같은 정신적인 측면, 육체적인 측면으로는 질병을 들고 있는데, 질병 중 가장 많은 것이 풍토병인 각기병, 폐결핵, 위장병, 소화기병 등의 순이며, 화류병(花柳病;성병) 또한 많고, 전염병의 악성환자가 많다고 한다. 이는 오사카의 공장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나 생활조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일제강점기에 제주~오사카 간에 개설된 정식 항로는 다음과 같다.

1922년 아마가사키(尼ヶ崎) 기선회사는 919톤급 제1군대환을 제주~오사카 간 직행 항로에 취항시켰다.

1925년 제1군대환과 교체한 1,224톤급 제2군대환이 취항했다.

1924년 조선우선(朝鮮郵船)의 749톤급 함경환(咸鏡丸)이 제주~오사카 간 정기항로에 취항하다가, 뒤에 1,039톤급 경성환(京城丸)으로 교체하여 운항하였다.

1925년 가고시마(鹿兒島)우선(郵船)주식회사가 제주도와 오사카 간 항로에 추가되었다. 이때 제주사람들의 승선으로 생기는 이익은 일본 기선회사가 고스란히 독차지하였다. 1928년에 들어와 기선회사들은 8엔 하던 배 삯을 12엔 50전으로 올렸고 이 금액은 당시 노동자의 평균 월급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큰돈이었다.

1930년 11월 제주도 출신들이 주도하여 제주도민의 자금을 모아 자주적인 동아통항조합(東亞通航組合)[29]을 설립하여 3,000톤급 교룡환(蛟龍丸)을 취항하여 제주도민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 후에 1,300톤급 복목환으로 바꾸어 취항했는데 3파전의 운임 경쟁이 치열하여 한 때 제주~오사카 간 여객 운임이 파격적으로 3엔까지 내려갔다. 제주~오사카 간 할인 경쟁에서 최후까지 남은 것은 아마가사키 선부의 군대환이었다(고선휘, 2006:44-45).

그러나 이런 경쟁의 이면에는 동아통항조합(東亞通航組合)의 간부가 좌익 활동 혐의가 있어, 섬의 치안상 동아통항조합을 요주의로 단정하여 당국이 1932년 10월 이후 엄중히 단속하고, 탄압한 것과 더불어 재정 궁핍으로 1933년 12월 1일부터 운항을 중지하였다.

1934년 여객 운임을 살펴보면 조선우선(朝鮮郵船)의 경성환은 8엔, 아마가키 기선회사의 군대환은 16엔으로 협정하여 출항일도 전자는 6의 날에 후자는 1의 날에, 오사카로부터 매월 3회씩 취항하였다. 또한 제주도 갈 때는 석탄을 싣기

29) 정혜경(2001)에 따르면 '제주통항조합'은 1929년 4월, 김문준이 제주도민 유지간담회를 열어 제주통항조합준비회 조직을 가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동아통항조합이 성립되었는데 동아통항조합은 결성 당시에 대표적인 오사카조선인운동가 김문준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김달준·문창래·현석헌·현길홍·김동인·성자선 등 제주도출신들이 주도하였다.

위해 시모노세키(下關)에 기항하지만 돌아올 때는 직항이었다. 따라서 섬의 출가자들은 우선 오사카에 들렀다가 다음 목적지로 이동한다(마스다 이치지, 2005:71-72).

오사카에서 오는 배는 제주도 회선(廻線)을 위해 최초의 기항지가 김녕이 되며, 김녕 앞바다 1km 해상에 정박하여 종선(從船)[30]으로 승객과 짐을 내리고 다시 도항할 인원을 승선시키고 다음 기항지인 조천에 다시 입항하여 승객을 교체한다. 제주읍 산지항에 도착하면 저녁 무렵이 되는데 하루 정박하여 다음날 아침 다시 출항하여 애월, 한림, 고산, 모슬포, 서귀포, 마지막으로 표선을 들러 오사카로 향한다(마스다 이치지, 2005:52-54).

1939년 발행된 『濟州島勢要覽』에 따르면, 제주~오사카 간에 운행하던 제2군대환은 월 3회 운항하며, 운항일은 3일, 15일, 25일이다. 기항지로는 오사카, 시모노세키, 부산, 애월, 산지, 한림, 고산, 모슬포, 서귀포, 표선, 성산포, 김녕, 조천이다[31].

일본으로 도항하는 선박은 모두가 섬을 일주하여 10여 개소의 요소(要所)에서 수시로 화물과 여객을 승·하선 시키는 것을 상례로 한다. 그러나 본도(本島)는 사면이 외해(外海)에 면하여 항상 풍랑이 심하기 때문에 항해의 위험은 물론 설비가 불완전한 곳에 정선(停船)하여 낮과 밤의 구별 없이 화객을 취급하고 있어 항상 큰 위험을 느끼고 있다.[32]

p6 **<표1>**의 A그룹이 이용한 정기 여객선을 살펴보면 A1은 경성환, A6은 배이름은 기억하지 못하고 종선을 타고 큰 배로 옮겨 탔다고 했다. 그러나 A6의 도항시기가 1941년이므로 군대환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A3은 여러 번 제주와 일본을 왕래했으므로 군대환과 복목환을 이용했으며 A2, A4, A5, A7, A8은 모두 군대환을 이용했다. 제주~오사카 간 직항노선에 첫 취항하여 마지막까지 경쟁에서 살아남은 군대환의 존재를 실감케 한다. 인터뷰 과정에서 구체

30) 군대환과 같이 큰 배는 수심이 낮은 해안 가까이에 정박할 수 없으므로 포구마다 종선을 대어 승객을 실어 날랐다. 고광민(2004:80)에 따르면 김녕포구에는 종선자리가 있는데 종선자리는 말 그대로 종선을 대는 자리의 이름이다. '한개'로 들어오는 길목에 '한개골'이 있다. 植民地時代에는 큰 배는 '한개골'에서 있고 종선은 종선자리까지 왕래하며 도항자들을 실어 날랐다.

31) 제주도청(2005), "제주도세요람", 「제주도의 경제」, 홍성목 역, 제주시우당도서관. p.121.

32) 상게서, p.120.

적인 시스템을 알 수는 없으나 정기코스 이외의 기항지에서도 승선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기항지에서 정기코스에 들어가지 않는 곳은 A5가 배를 탄 위미, A6이 배를 탄 차귀도, A8이 배를 탄 외도이다. A7의 노선은 성산포를 들르고 한반도 남해안인 목포와 다도해를 거쳐 일본에 간 사례로 보아 필요에 따라 도항노선이 자주 변경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사례는 A그룹의 인터뷰 내용이다.

A1 조천주재소에서 허가증명서를 받아 경성환을 타고 도항했다. 그 배를 타기 위해서는 5~6명씩 지금의 고깃배 닮은 뗌마[33]를 타야만 했다. 바다 밑에 암반이 있기 때문에 조천 금당포에서 1.5Km지점에 정박한 경성환까지 뗌마를 이용한 것이다. 조천에서 군대환을 타지 못하면 성산포로 가서 탔다.

A3 군대환과 복목환을 타고 일본을 드나들었다. 종선을 타고 군대환 근처에 가면 내가 어리니까 보이가 손을 잡아 군대환으로 확 잡아끌어 올리는데 굉장히 무서웠다. 군대환을 타면 사흘이 걸리는데 가는 동안에 보이가 웃기고 춤도 잘 춘다. 대마도 거쳐서 시모노세키로 가는 군대환 탔던 생각난다. 대마도에서 잠시 배를 멈춰 세우면 작은 배에서 먹을 것 같은 혀뜩한 물건[34]들을 팔았다.

A7 서귀포에서 군대환 타고 갔다. 일본 갈 때는 일주일 걸렸다. 목포로 갈 때는 더 걸리고 시모노세키로 바로 가면 3일 걸린다. 난 성산포 들르고 목포에 가서 미군들 쌀 같은 것을 실어 가지고 가는 배를 탔다. 이상하게 난 멀미는 하지 않았다. 그냥 기분이 좋았다. 처음으로 배도 타보고 목포에 내려도 보고 재미있었다. 배 삯은 4원 정도였던 것 같다. 군대환은 1, 2등실이 없었다. 2등실이라는 것이 알고 보니 특3등이었다. 정원이 20~25명 정도였다. 나는 특3등을 탔다. 돈이 있어서 탄 것이 아니라 싼 곳이 만원(滿員)이어서 특3등을 타게 된 것이다. 군대환은 아마가사키기선회사에서 운영했다. 산바시(棧橋)라는 데가 군대환 대는 곳이다. 제주는 김녕으로 들어온다. 해류가 김녕 오는 것이 가깝다는 얘기 들었다. 그 다음 제주시, 애월, 한림, 모슬포, 서귀포, 성산, 그래서 육지부로 나가서 시모노세키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직접 가는 경우도 있었다. 내가 갈 때는 목포 들러서 남해안 다도해와 시모노세키 들러서 오사카로 갔다.

---

33) 전마선(傳馬船)은 일본 발음으로 '뗌마센' 이다. 짐이나 소수의 사람을 운반하는 작은 배로 거룻배를 말한다, 뗌마, 뗌마부네라고도 한다. 여기서는 종선(從船)을 말한다. 현재 김녕에는 종선을 타던 '종선자리' 라고 하는 지명이 남아있다.

34) 표준어로는 '잡동사니' 를 의미하는 제주방언이다.

합법적 도항의 목적지는 오사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제주~오사카 간 직항노선이 개설되었고, 이 노선으로 오사카를 경유하여 게이한신(京阪神) 등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헌이나 A의 면담내용을 모두 정리해 보면 배의 종류나 운임, 운행날짜, 기항지, 출항지, 코스 등에서 다소의 차이를 보인다. 그것은 A도항자의 경우처럼 나이가 어려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기상 사정이나 승객의 유무여부, 화물운반 등 여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를 운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3> 비합법적 도항의 경로와 알선비용**

| 도항자 | 도항수단 | 출발지 | 기항지 | 도착지 | 소요일 | 알선비용 (운임포함) | 비고 |
|---|---|---|---|---|---|---|---|
| B1 | 밀항선 | 제주 | 여수 | 오사카 | 모름 | 15만원[35] | |
| B2 | 밀항선 | 부산 | 통영(짐작) | 오사카 | 모름 | 18만원 | 당시 부산 거주 |
| B3 | 파나마운반선 (4,000톤) | 제주 | 포항 | 홋카이도 | 2일 | 기억안남 | 밀항 당시 지참금은 4만엔 |
| B4 | 화물선 (25,000톤) | 부산 | 인천 | 미즈시마 | 3일 | 300만원 | 원래는 요코하마행 |
| B5 | 화물선 | 제주 | 목포 | 요코하마 | 3일 | 일본돈 40만엔 한국돈 40만원 | |
| B6 | 비행기 | 제주 | - | 오사카 | 1일 | 없음 | 정식여권 소지 |
| B7 | 비행기 | 제주 | - | 오사카 | 1일 | 300만원 | 브로커가 만들어준 여권 소지 |
| B8 | 비행기 | 제주 | - | 요코하마 | 1일 | 없음 | 정식여권 소지 |

위의 **<표3>**에서 알 수 있듯이 B그룹의 도항 경로와 도항 알선비용은 다양하다. B4의 증언에 의하면 전문 밀항선은 개인소유라든가 50~60톤가량 되는 배를 밀항선 조직에서 빌려서 운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70~80명의 밀항자를 싣고 가는 경우, 일인당 배 삯은 70만원 정도라고 한다. 밀항선 조직은 대단한데 아무도 그 조직의 전체적인 구조를 모른다. 밀항자는 모집책 밖에 모르고 모집책은 바로 그 위의 모집책 밖에 모른다. B2와 B5의 증언에 의하면 전문 밀항선이 아

35) 5년 후에 도항한 그의 아내의 알선비용은 35만원이었다.

닌 경우에도 실제로 배 안에 있는 물탱크 속에 숨어 밀항하는 경우가 많은데, 밀항자가 숨어 있는 사실을 모르는 다른 선원[36]이 물탱크에 물을 부어 그대로 익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1980년대 이후의 도항은 60~70년대 도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B6, B7, B8인 경우 모두가 비자를 받아 여권을 소지하고 도항한 후 15일의 체류 기간을 넘겨 여권 기간인 3년을 목표로 불법체류한 사람들이다.

다음은 B그룹의 인터뷰 내용이다.

B4 부산~요코하마 사이의 화물선(무역선)을 타고 갔다. 보름에 한 번 있는 배가 25,000톤급이라 했다. 배에 있는 굵은 밧줄 타래아래 큰 공간이 있다. 깊이가 3m정도 될 것이다. 그 안에 둘이 앉아 있었다. 겨울이었는데 그 안은 따뜻했다. 밀항으로 일본으로 가는 도중에 바다에서 잘못되거나 일본에 도착해서 걸리는 사람도 있다. 우리가 탄 배는 인천을 들러서 갔다. 하루 자고 가는 도중에 요코하마에 짐이 없으니까 미즈시마(水島)에서 철근을 싣고 오라는 연락이 와서 우리는 미즈시마에서 내렸다. 선원이 한국 갔다 올 건지 그대로 그 곳에서 내리겠냐고 물어서 그냥 내리기고 했다. 다른 한 사람은 한림사람이었다. 난 일본에 연락처가 없으니까 같이 간 사람의 형에게 선원이 연락을 하니 그의 형이 데리러 온다고 해서 배에서 하루인가 이틀을 기다렸다. 우리는 밧줄이 있는 근처에 있었는데, 조사를 나온다고 하여 갑판으로 옮겼다. 그 안에서 7~8시간 있었는데 너무 추워서 견디기 어려웠다. 갑판에서 뛰어 내리는데 발이 굳어 있을 정도로 추웠다. 선실 목욕탕에서 뜨거운 물에 1시간 정도 물에 담그니까 조금 풀어졌다. 배를 타서 일본까지 간 과정이 참 신기했다. 선원증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냥 통과했다. 일꾼이라 하니까 영도에서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한 사람의 선원이 다른 선원들 모르게 우리를 데리고 간 것이다. 배안에서 3박 4일 정도 있었다. 알선비용은 한 사람당 300만원 이었다.

B7 1985년경 여름, 일본 오사카 절간에서 초청하는 단체초청여권으로 다른 부락 사람들과 함께 스님 복장을 하고 내무부 도장이 찍힌 정식여권[37]을 지참하고 일본으로 갔다. 우리 동네에서는 나 혼자 갔다. 원래 아는 사람도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스님처럼 머리를 깎아야 되니까 그게 싫어서 가지 않았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간 마지막 사람들일 것이다. 머리도 깎고 스님복장에 떡도 해가지고 갔다. 일본에 도착해서 절에서 3일간 머물다가 각자 흩어졌다. 안내자가 제주도~오사카 간 비행기 알선도 해주고 일자리도 배치해 준다. 난 오사카에 동생에게로 갔다. 알선비용은

36) 전문 밀항선이 아닌 다른 배에 숨어 밀항하는 경우, 그 배에서 일하는 선원 전부가 밀항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브로커에 해당하는 1~2명의 선원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
37) 브로커가 만들어준 것이다.

300만원이었다.

동생도 1984년 서귀포에서 배를 사가지고 밀항으로 일본에 갔다. 그럴 때는 던져버릴 것을 생각하여 나쁜 배를 산다. 그런데 운이 나빠서 한국과 일본의 경계해역에서 배가 부서져 버렸다. 선장이 옷 다 벗고 나무판자 잡고 헤엄치고 있으라고 했는데 여자들은 차마 옷을 벗지 못하고 모두 가라앉아 버렸다. 기록에도 없는 이런 경우가 많았다. 밀항은 목숨 내놓고 하는 것이다. 남자들이 무전을 치니까 일본사람들이 구해줘서 남자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B8 관광비자로 갔다. 3년간 체류할 생각으로 갔다. 비자기간은 15일이지만 여권기간이 3년이라서 3년 체류할 계획이었다. 불법체류인데 일본에서도 알면서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것 같다. 요즘 동남아 사람들이 불법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요코하마로 갔다. 일본 갈 때는 자기 여권으로 나가지만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는 브로커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여권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다. 비용이 100만 엔이다. 그 정도 벌 자신이 있으니까 브로커 통해서 들어온다. 한국에 들어와서는 도청에서 여권을 새로 만들어 다시 나갔다.

B그룹의 경우 대부분이 일본에 이미 친인척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항을 하게 되는데 그 도항이 불법적인 밀항이기 때문에 어느 날, 어떤 배를 타고 일본으로 도항하게 될지 알 수 없어서 밀항과정에서는 친인척의 도움을 받지 못하지만 일본에 도착하게 되면 그들의 많은 도움을 받게 된다.

비합법적 도항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눈에 띄는 특징으로서는 도항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도항비용은 소개비와 운임이 포함 되어 있는데 시기 혹은 조건이나 경우에 따라 그 비용이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밀입국 출발지가 자주 변경되기도 하며 몇 사람의 손을 거쳐 예상치 못한 배를 타기도 하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곳에 내리기도하여 곤혹을 치르기도 한다. 이는 한국의 출입국사무소나 일본 해양경찰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 밀항주선자들의 임시방편적인 대응 때문이었다.

# Ⅳ. 일본 생활

도항에는 문헌에 나타나지 않는 개인의 생생한 삶이 존재한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일본을 왕래하거나 그 곳에 머물게 되면서 도항자들은 일본을 재화획득의 현장으로서 자신들에게 이로운 땅으로 인식하게 된다. 제주와 일본 사이에 가로놓인 현해탄[38]은 그들에게 국경으로 표현되는 경계선과는 상관없이 섬과 섬을 이어주는 교통로 역할을 했다. 이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제주사람들의 일본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은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갖게 하는 출발이기도 했다.

**<표4> 일본에서의 생활**

| 도항자 | 기거형태 | 직 업 | 조력자 | 수 입[39] | 고 충 | 도항효과 |
|---|---|---|---|---|---|---|
| A1 | 조부모와 동거 | 초등학생 | 조부모 | -[40] | '조센징'[41] 이라는 놀림 | 학업 |
| A2 | 부친과 동거 | 초등학생 | 부친 | - | - | 학업 |
| A3 | 가족동거 | 초등학생(제주) | 부친 | - | 오빠의 학업 반대[42] | 선진문물 견학 |
| A4 | 언니와 동거 | 슬리퍼 공장 심방 | 언니 | 17년간 6억원 | - | - |
| A5 | 가족과 동거 | 미취학아동 | 부친 | - | - | - |
| A6 | 고모 댁 | 초등학생 | 고모 | - | - | 선진문물 견학 |
| A7 | 형과 동거 | 유학생 | 형, 선배 | 생활비와 학비 | 조선인 무시 | 학업 |
| A8 | 가족과 동거 | 주물공장 | 부친 | - | 조선인 무시 | 선진문물 견학 |
| B1 | 친척집 | 플라스틱 공장, 고무공장 | 친척 | (일당)1,000엔 ~ (월)약 60만엔 | 언어, 밀고[43] | 자녀교육과 주택마련 |
| B2 | 친척집 | 제화공 | 처고모 | (월)5만엔~ 10만엔 송금 | 언어, 밀고 | 자녀 교육, 경제생활개선 |

38) 겐카이[玄海]라고도 하며, 한국에서는 현해탄(玄海灘)이라고 한다. 동쪽의 오시마섬[大島]에서 서쪽의 이키섬[壹岐島]에 이르는 수심 50~60m의 얕은 바다로, 많은 섬과 암초가 산재한다. 겨울에는 북서계절풍을 강하게 받아 파도가 거세기로 유명하다. 해방 전에는 부산~시모노세키[下關] 간 연락선이 이 해역을 왕래하면서 한민족이 품었던 애환을 말없이 지켜본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 | | | | | | |
|---|---|---|---|---|---|---|
| B3 | 스미코미[44] | 파칭코<br>러브호텔 | 친척 | 본인의 생활비 | 언어, 장시간노동 | - |
| B4 | 친척집 | 제화공,<br>식당 | 사촌형 | (월)3만8천엔~<br>12만엔 | 언어, 밀고,<br>수면부족 | 자녀교육,<br>일본어 습득 |
| B5 | 친척집 | 미싱일 | 외숙모 | (월)15만엔<br>저축 | 언어, 밀고,<br>아플 때 | 자녀교육,<br>주택마련 |
| B6 | 스미코미 | 식당 | 지인 | - | 짧은 비자기간 | 경제생활향상 |
| B7 | 동생과 동거 | 고무공장 | 브로커 | - | 언어, 장시간노동 | - |
| B8 | 지인의 집 | 미용업 | 지인 | 9년간 3억원<br>정도 저축 | 언어,<br>열악한 근무환경 | 경제적<br>기반 조성 |

위의 <표4>의 A그룹은 일본에서 직계가족과 함께 생활했으며 나이가 어려 가족들의 수입이 어느 정도였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일본에서 학업이나 선진문물을 견학할 수 있었던 사실에 긍지를 갖고 있었으나 A1, A7, A8의 기억 속에는 일본인들의 '조선인에 대한 무시'가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면담조사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도항한 A1의 조부모는 나물기름, 참기름, 콩기름 등의 기름공장을, A3의 부친은 와이셔츠 공장, A8의 부친은 전구회사를 경영하여 비교적 넉넉한 생활을 했다.

A2에 의하면 일본사람들이 잘 아는 제주마을은 고내리, 법환리, 조천리라 했다. 그만큼 그 지역 사람들이 도항을 많이 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A2 난 조천사람이다. 그 당시 연북정[45]에서 일본어 시험을 봐야 일본에 갈 수 있었다. 일본에서 소학교를 졸업했다. 일본에서 제주사람을 좋아했다. 그런데 조천사람이라고 하면 싫어했다. 제2의 개성사람이라 했다.

---

39) A4를 제외한 A1~A8의 수입은 부모 등의 수입을 말한다.
40) '-'표시는 도항자가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부분이다.
41) '朝鮮人'을 일본발음으로 '조센징'이라 한다. 조선인을 비하해서 이르는 말이다.
42) 부친이 A3에게 '머리가 좋으니 일본에서 공부하면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하여 일본에 갔으나, 당시 일본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던 오빠가 '여자가 공부해서 뭣하겠느냐'고 해서 일본에서 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제주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며 방학만 되면 일본에 갔었다.
43) 밀고를 하는 사람은 주로 '한국사람'이었다고 한다. 밀고이유로는 '밀항자에 대한 임금체불', '밀항자와의 채무관계', '이직(移職)의 우려가 있을 때' 등이라고 한다. 일본인이 밀고를 하는 이유로는 '고성방가' 등 질서를 어지럽힐 때라고 한다.
44) '住込み(스미코미)'란 직장 안에서 숙식을 하며 일하는 경우를 말한다.
45) 연북정에 '주재소'가 있었다.

A3의 조부는 일본에서 철물 파는 곳을 자주 드나들었다고 한다. 제주에서 볼 수 없는 편리한 기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A3에 의하면 당시 오사카에는 김녕사람이 많았고 종달리, 구좌면 사람도 있었다. A3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부모를 따라 도항해서 일본에서 유학한 남편과 제주에서 결혼을 했다.

A3 오사카와 제주를 자주 왔다 갔다 하며 살았다. 학교이름을 기억할 수 없지만 오빠(1919년생)는 일본에서 학교를 다녔다. 내가 일본가면 일본사람들이 가네모치노무스메[46]라고 했다. 일본사람들[47]도 시골에서 오사카로 와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제주에서는 김녕 사람들이 많이 왔으며 주로 고무공장, 신발공장, 가방공장에 다녔다.

A4는 조사대상자 중에서 유일한 제주의 심방이었다. A그룹의 다른 도항자와는 달리 본인이 생활현장에 뛰어든 경우이다. A4는 도항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제주로 돌아왔다가 심방이 되어 60세부터 굿하러 일본을 다녔다. 이 심방이 일본 사람들에게도 귀양풀이 같은 굿을 해주었다고 하는데 이 귀양풀이는 소위 죽은 사람을 저승으로 잘 인도해주는 천도굿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항자들이 일본에 가서도 여전히 굿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하고자 했던 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A4 17년간 일본을 드나들며 6억원을 벌었다. 오사카, 도쿄, 홋카이도(北海道), 센다이(仙台) 등 일본을 9개월, 6개월, 3개월 단위로 다녀왔다. 1월에는 8번 다녀온 적도 있다. 굿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500만원~700만원 정도 한다. 보통 굿은 9일~10일 걸려서 했다. 일본은 사업하는데 귀신을 모셔야 한다. 떼어 버리면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믿는다. 일본사람에게도 귀양풀이를 해주었다. 부모의 사후를 위해서 굿을 하는 일본사람들도 있었다. 비용은 300만원~1,000만원 정도였다. 도쿄에 가면 한번에 70만 엔에 편도 비행기표도 제공해주었다.

A5의 부친과 A7의 형은 유학생이었다.

---

46) 일본말로 '가네모치노무스메(金持ちの娘)'란 부잣집 딸이라는 뜻이다.

47) 1925년 당시 오사카는 일본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세계유수의 도시로서 상업·금융의 중심도시일 뿐만 아니라 방직업과 기계공업 등의 공업지대를 가진 아시아 최대의 상공업도시이기도 했다. 오사카는 제주도와 오키나와의 값싼 노동력을 끌어들이는 동아시아의 국제도시였다. 여기에서 '일본사람'이란 주로 오키나와 사람이다.

A5 60년대까지는 북한이 경제사정 좋았다. 70년대부터 한국이 좋아졌다. 1960년 일본의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의 '일본속의 조선'기사 중에 조선인학교 학생에게 목표에 대해서 물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조국건설 하겠다" 하였으며, 거류민단은 "일본인과 잘 어울리면서 사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북한에서는 조선인학교에 전적으로 투자했으나, 한국은 전혀 지원이 없었다. 거류민단은 국어를 외국어 가르치듯 1주일에 2번 정도 일본어로 가르쳤다. 반면에 조선인학교는 국어를 우리말로 매일 가르쳤다. 거류민단 학교는 경제사정이 넉넉한 사람들이 가고 거류민단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조선인학교에 갔다. 당시 북한은 일본에 있는 엘리트들을 스카웃 했다. 한국에서는 그것을 납북, 납치라 했다. 제주에서 일본으로 유학 간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북한이 무료교육 시켜준다 해서 북한으로 간 사람들도 있다.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정치적 망명이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 문제는 고심을 해봐야 할 문제이다.

A2의 부친은 군대환 보이, A4의 언니는 자개단추 공장 종업원, A6의 모친은 방적회사 종업원이었다.

A7은 요즘으로 말하면 조기유학생이었다. 도항목적이 유학이었으므로 주위에는 모두 유학생들이었다고 한다. 그들 몇몇 사람이 돈을 모아 우유 특판점을 운영했다. 우유특판점 설립자금으로 A7의 아버지는 제주의 땅을 팔아 돈을 부쳐주었고, 우유특판점에서 돈을 벌어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했다.

A7 서귀포 서홍리와 동홍리에서 유학을 간 사람이 10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선배 한 명이 주동이 되어 명치(明治)우유 특판점[48]을 했다. 그 당시 신기하게 느꼈는데 한 사람이 300원씩 모아서 특판점을 했다. 아버지가 그 돈을 보내주기 위해 땅을 하나 팔았다. 선배가 사장역할하고 형님과 또 다른 선배는 아침에 배달을 하고, 난 어리다고 식사당번을 시켰다. 육지부에서 온 학생들도 우유배달을 도왔다. 회계관계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우유 특판을 해서 한 달에 5원인 수업료를 내고 생활비도 충당했다. 내 역할은 야오야[49]에서 부식을 사다 식사준비를 하는 것이었다. 힘들다는 생각보다 선배나 친구도 많아서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일제강점기에 제주에서는 매일 아침 조회시간에 '국민선서'라는 것을 읽었는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제주에서는 쌀을 구입하기 어려웠는데 쌀을 배급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신기했다. 난 대학을 못가고, 형님은 학교를 나와서 학도병으로 가버렸다. 나는 나고야 관립 고등공업학교(현 전문대학)의 진학을 희망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그러나 다행히 조선장학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1학년 여름방학에 제주에 왔는데 형님이 시국이 혼란하니

48) 한국의 '대리점' 에 해당된다.
49) '채소가게'를 일본에서는 '야오야(八百屋)'라고 한다.

일본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하여 일본 길을 포기했다.

A8 역시 일본으로 유학 온 남편을 만나 일본에서 결혼을 했다. A3와 A8은 일본에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생활했으며, 이들이 기억하는 일본에서의 제주사람들의 직업은 고무공장, 신발공장, 가방공장, 주물공장, 선박업. 단추공장, 세탁소, 플라스틱 공장 등이다. 친인척들은 하숙집을 한 경우도 있고, 특히 한국사람 대부분이 주물공장을 했다.

A8 그때 사람들 밀항으로 가지 않았다. 일본 순경이 감독한다. 일본 갈 때는 일본에 살고 있는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일본에서 서류 보내면 순경이 확인해야 갈 수 있었다. 다들 노동하러 갔다. 우리 친정 궨당[50]들 다 갔다. 식구들 다 간 집도 있다. 법적으로 일본서 공장하라고 했다. 전시체제라 일본사람을 통해 제품을 팔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라 조선 성(姓)을 쓰지 못하게 해서 결혼해서는 '하세가와'[51] 라는 일본식 성을 쓰고 살았다. 일본은 전기불도 들어오고 여러 면에서 제주에 비해서 아주 편리했지만, 한국사람과 중국사람에 대한 차별이 심했다. 지금도 차별하고 있을 것이다. 도일 6년 후인 18살에 제주에서 유학 온 화가와 결혼했다. 남편은 당시 26살이었다. 결혼해서도 오사카에서 미혼인 시누이와 함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결혼하고 남편은 1년 정도 징용을 다녀왔다. 해방이 되니까 3달 만에 제주로 돌아 왔다.

B그룹은 모두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목적 하에 도항한 사람들이다. 도항해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첫째가 언어문제였고 둘째가 밀고였다. 언어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이지만 밀고는 도항해서 귀향할 때까지 늘 불안한 요소로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밀고한 사람은 거의가 동족인 한국사람이라고 믿고 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도일하면 처음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한국 사람이고 밀고를 하는 것도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다. 일본사람들은 고성방가 등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밀고하지 않으며 대부분이 밀항자인줄 알면서도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밀항자를 고용했다. 오히려 일본에서는 일본식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고 어드바이스까지 해주었다.

B2 나보다 3년 먼저 도항한 아내는 플라스틱 공장에 다녔는데 맹장수술도 하고 몸이 약해서

50) '친척'을 의미하는 제주도 방언이다.
51) 남편의 성(姓)씨가 '장'씨 였으므로 '장'자를 넣어 '하세가와(長谷川)'란 성을 썼다.

일을 잘 못했다. 내가 일본가보니 아내는 고모네 가족과 함께 2층에 살고 있었다. 오사카 서성구라는 곳은 제주사람이 아주 많은 곳이었다. 한림, 조천, 함덕 사람은 물론, 김녕 사람은 전부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았다. 그 사람들은 이미 등록이 있는 사람들이라 삶이 우리만큼 고달프지는 않았다. 우리는 밀항으로 가니까 살기 힘들었다. 이사 한번 하려면 미싱소리 시끄럽다, 아이소리 시끄럽다 해서 집을 얻기 힘들었다. 처음 가서 한 일은 구두카피였다. 3년간 여러 가지 기술을 한꺼번에 익히려니 힘이 들었다. 4년 만에 밀고를 당했는데, 마침 아내는 아이 데리고 병원[52]에 가 있었고, 나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도망가라는 연락을 받고 피했다. 13년 사는 동안에 17번 밀고를 당했다. 딸들을 고향에 맡기고 도일했기 때문에 생활비와 학비를 제주로 보냈다. 외환은행 또는 인편을 통해서 보냈다. 한 달에 20만엔 이상은 보내지 못한다. 전기밥솥을 보내주면 제일 좋아한다. 인편으로도 청소기, 카메라, 학용품 등 귀하다고 소문 들으면 별의별 물건을 다 보내주었다.

등록증 가진 사람들은 이전에 밀항으로 간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일본이 패전했을 때는 일본 국내도 어수선했었을 때라서 밀항도 쉬웠고 등록 만들기도 쉬웠다고 한다. 그래서 도일한 지 13년 만에 나도 등록증을 만들어 잘 살아보자고 생각했다. 우선 구두카피사장 2명이 보증을 서주고 집을 담보로 해서 3층짜리 집을 샀다. 등록이 없으면 집을 사지 못하는데 나고야의 어느 유력한 변호사[53]가 집을 사면 등록될 수 있다고 하여 집을 샀다. 그런데 밀고를 당해서 할 수 없이 자수하니까 1년간 임시등록이 나왔다. 조사받는 동안에 1년 걸린다고 하니까 동태를 살펴보자고 했는데, 결국 집을 사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추방당했다.

p6 B그룹이 일본에 도착해서는 주로 친척집이나 스미코미로 있었으며, B그룹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은 직계가족의 도움을 받은 A그룹과는 달리 친인척으로 확대된다. 그것은 그만큼 제주사람들의 일본거주가 증가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도항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부당한 근무조건 하에서 일을 했다.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일본사람이나 재일교포에 비해 저렴한 임금을 받았다. 아무리 억울해도 밀항자 신분으로는 드러내놓고 근로시간이나 실질임금의 부당성에 대해 항변을 할 수 없었고, 말없이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 밀항자들은 어느 날 어딘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거나 실종이 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나 서류상으로 아무런 흔적조차 남지 않는 유령적인 존재에 불과했다. 이렇듯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재일제주인이나 도항자들은 제

52) 불법에 해당되지만, '등록'을 가진 사람의 의료카드를 빌려 병원을 갈 수 있었다.
53) 그 변호사의 말대로 해서 친구 한명이 등록이 되었다.

주에서처럼 제사를 모시고 집 지을 때 성주풀이를 하거나 누가 죽었을 때 귀양풀이를 하는 등 비록 타지이지만 자신들의 문화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어쩌면 그것이 타지에서의 유일한 위안거리였는지도 모른다.

B1 처음에는 친척집에서 플라스틱공장을 다녔다. 1년 후에 고무공장으로 일자리를 옮겨 하루에 12시간씩 일했다. 그 곳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 전부가 밀항자였다. 일본사람들[54]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일 잘하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밀항자들을 썼다. 방을 하나 빌어 아내와 함께 살면서 신발공장에 다니며 모은 돈을 제주에 있는 아이들에게 보냈다. 돈은 먼저 인편으로 친척(아이들의 이모)에게 보냈다가 친척이 다시 그 돈을 한국 돈으로 바꾸어 아이들에게 전해 주었다. 1년 정도 일을 배워 일에 익숙해진 아내와 함께 작은 신발공장을 차려서 종업원 5명을 데리고 일했다. 제주사람을 썼다. 한 달에 60만엔~70만엔 정도 수입이 되었다. 그 돈으로 아이들 전부 공부시켰다. 그 당시 일본에서는 신발산업이 좋아서 10년 전에 간 사람들도 거의가 까만 고무 슬리퍼 만드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누가 밀고해서 걸려 감방에 들어갔다. 아는 사람이 보증서서 나와 도쿄에 가서 다시 신발공장을 했다. 작업장만 만들면 되니까 공장 차리는 것은 간단했다. 일본에 있으면서도 제주에서 하는 식으로 제사를 했다. 제삿날에는 아는 사람도 찾아온다. 제주사람 굿하는 거 좋아하니까 이웃에서 굿도 거의 매일 한다. 굿을 하기 위해 일본을 자주 출입하는 심방도 여럿 있었다. 집지을 때는 성주풀이를 하고 돌아가셨을 때는 귀양풀이[55]를 한다. 1주일 걸리는 것을 3일 만에 해치우는 경우도 있다. 서촌사람들은 굿을 잘 하지 않는데 동촌사람들, 특히 토산사람들이 굿을 많이 한다.

B3 처음에 파칭코에서 일하는데 밀항이라 걸리니까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다이(台)안에서 기계를 고치는 일을 했다. 일본사람들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교대로 일하는데 나는 하루 종일 일했다. 사장이 한국사람인데 일본인에 비해 한국사람에게는 돈을 적게 준다. 10시간이나 일해도 다른 사람보다 적게 준다. 차별이 심하다. 그 곳에서 4~5년 일했다.

다음으로 도쿄에서 러브호텔에 취직했다. 2,3년 근무했는데 월급이 작았다. 24시간 요를 교체하고 청소하다 보면 땀이 많이 난다. 그런데 보트경기 보러 갔다가 그 전에 다니던 파칭코의 매니저를 만났다. 같이 일하자고 해서 군마현(群馬縣)에서 매니저 밑에서 일하는데 일반사원 보다 돈을 많이 받았다. 오모노(大物)[56]는 북한에 속한 조총련이었다. 동북과 관동지방에 40군데 파칭코가 있었다. 3년쯤 일하다 조총련학교 선생들도 친절했으나 정치이야기 하고, 조총련이라서 그만

54) 반드시 일본사람이라기보다는 '재일한국인'도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신들과는 처지가 다르다하여 일본사람이라고 지칭했다.
55) '귀양풀이'란 죽은 자를 장례지내고 돌아온 저녁에 집에서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 치르는 굿이다.
56) '사장' 내지는 '회장'을 말한다.

두었다. 도쿄에서 개인이 하는 파칭코에 들어갔다. 일본여성이 보증을 서주어 나리타(成田) 파칭코에서 일하다 4~5년 후에 그만 두었다. 민단사람 알게 되어 가이바(買場)[57]에서 6년 일했다. 권총강도가 들었는데 4군데 중에서 내가 있는 곳은 다른 데에 비해 덜 당했다. 그러나 돈을 손해보니까 그만두게 되었다. 몸 아프고 위가 아파서 귀국했다.

B5 오사카에서 스미토모(住友)회사의 용접공으로 들어갔는데 말 모르면서 일을 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걸릴까봐 나다니지 않고 일만했다. 처음에는 14만엔 받다가 20만엔 정도까지 받았다. 2년 후에 미싱을 준비해서 재일교포 데리고 고무슬리퍼 공장을 했다. 등록있는 사람과 같이 하지 않으면 안된다. 신원조회를 1년에 4번 나온다. 그 때 등록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인건비 제하고 나면 생활비 쓰고 한 달에 15만엔 정도 저축했다. 재일교포인 외숙모에게 돈을 주어 제주로 보냈다. 지금도 일본에서 미싱할 때 쓰는 작은 가위가 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75년도에 1,450만원 주고 광양에 집을 샀다. 밀항하여 4년 만에 집을 사기는 어려운데 아내가 먼저 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제주에서 살았다면 집산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남자 혼자 간 사람들의 고생과 서러움은 말도 못한다. 말 모르는 밀항자는 식당에 가서 밥도 사먹지 못하고 빵만 사먹는다.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다. 밀항자는 누구에게 맞아 죽어도 모른다. 그런 사람 많았다. 이런 것은 우리만이 아는 사실이다. 밀항자들은 3D업종에 종사하며 일본사람들이 먹지 않는 것[58]들을 먹었다. 일본에서 중부(仲父)가 돌아가셔서 제사도 하고 초하루와 보름도 했다. 중부님은 김녕 공동묘지에 모셨다. 꼭 제주에 오고 싶어 했다. 75년도에 집사고 81년도에 자수해서 귀향했다.

B4는 도항하여 일본어를 습득하기로 결심한 경우이다. 금전적인 것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일본어 습득을 위하여 일본에서 직장을 옮긴 특별한 케이스이다. 그는 온갖 고충을 감내하며 일본어 실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한 도항자이다.

B4 처음에 오사카로 갔다. 고향에서 사람이 왔다고 하니까 제주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제주소식을 듣고 싶어 했다. 대환영을 받았다. 내가 알지 못하는 형(큰아버지 아들)이라는 사람도 찾아왔다. 신원조회해서 걸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시절이었다. 연좌제가 심했을 때이다. 사촌형이라고 나타나서 깜짝 놀랐으나, 밀항 온 사람 몇 명 있다고 하면서 오해하지 말라고 했다. 사촌형이 하는 공장에서 와이셔츠 같은 것을 스팀으로 다리는 일을 했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먼지가 무척 많이 나온다. 마스크는 더워서 도저히 할 수 없다. 뼈만 남도록 말랐다. 3개월 만에 감기에 걸렸다. 몸이 아파도 형은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나보다 6개월 먼저 밀항한 친구가 와서 데리고 갔다. 폐렴이라 했다. 그 때가 가장 서러웠다. 처음에는 봉급을 8만엔 받다가 12만엔까지

57) 파칭코에서 이겼을 때 주는 '상품'을 돈으로 교환해 주는 곳이다.
58) 당시 일본인들은 곱창, 소꼬리, 순대 등을 먹지 않았다고 한다.

받았으나, 일본말 배울 기회가 없어서 8개월 만에 동경으로 갔다. 도쿄 간다(神田)에서 이모가 중국집을 경영했다. 만두백반이 유명한 식당이어서 점심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다. 봉급은 작았지만 말을 배우기 위해서 그 곳에서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일했다. 점심시간이 바쁘니까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추가로 일을 했다. 그래도 봉급은 5만5천엔이었다. 처음에는 3만8천엔이었다. 밤에는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에 잠잘 시간이 부족했다. 진보쵸(神保町)에는 책방과 출판사가 많아서 좋았다. 전 세계 사람들이 책을 구하러 올 정도였다. 대학도 많아서 식당에도 대학교수들이 많이 왔다.

1973년 10월에 아내가 오사카로 밀항을 왔다. 처남이 먼저 밀항을 와 있었다. 처남댁이 해녀인데 밀항 가서도 물질하러 다녔다. 처남도 선장이었으므로 시골 가서 함께 물질하면 공장 다니는 것보다 수입이 몇 배 좋았다. 처남이 일본 온 기념으로 세이코 손목시계를 사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계가 고장이 나자 시계 산 곳을 찾아가서 교환해주던가 고쳐주던가 해달라고 했더니 교환은 안된다고 했다. 내 일본말 억양이 틀리니까 밀항자라고 생각했는지 시계방에서 고발한 것 같다. 시계방에서 나오는데 경찰차 안에서 4명의 순경이 나오더니 나를 잡았다. 경찰서에 가서 한국사람 아닌 척 했다. 형사가 때리려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조센징이라고 하는 것이 기분 나빴다. 그래서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특히 주소를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다. 함께 사는 밀항자들끼리 누구라도 걸리면 다른 밀항자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3일간은 주소를 얘기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밀항자는 밤에도 깊은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언제 밀고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신발을 항상 창문 가까이에 두고 도망갈 준비를 해놓고 잠을 잤다.

1980년대로 접어들게 되면 단수여권과 단기비자로 도항하여 불법체류자로 남게 되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특히 식당이나 유흥업소 등에서 근무하는 여성의 증가가 눈에 띈다.

B6 식당에서 일하며 불법체류자로 있었다. 관광비자로 가면 3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 그 이상 체류하면 신고하고 나온다. 그런 경우 다시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일본 가서 일하고 오면 한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수입이 훨씬 좋다.

B7 동생 집에서 같이 살았다. 처음에 가서 플라스틱 비디오 껍데기 만드는 데 다녔는데 하도 힘들어서 먼저 가 있던 사람에게 다른 일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다. 옮겨간 곳의 사장이 동편 사람이었는데 스미코미였다. 기계가 2대 정도 있었다. 낮에는 자기들 식구들이 하고 밤에는 우리가 일을 한다. 저녁 8시에서 밤8시까지 한다. 밤 12시에 330엔짜리 도시락을 먹었다. 아침은 주지 않았고 잠자는 곳은 공장 위층에 있었다. 밥은 저녁 5시와 밤 12시에 주고 아침밥을 주지 않아 낮에 밥 없어서 배고팠다. 그런 사람들도 개는 세 끼를 주는 걸 보면, 제주사람을 개만도 못하게

취급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 사람에게 돈 달라고 하면서 제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옛날은 더 심했는데 못 참는다고 했다. 살도 빠지고 말이 아니었는데 아는 사장이 자기네 가게로 오라해서 갔는데 그 곳에서 기계로 페인트 뿌리는 일을 했다. 목욕하다 코를 풀면 페인트가 섞여 나온다. 친구 일하는데 놀러 갔는데 더워서 견딜 수 없어서 파칭코 하다 한국말로 하니까, 누가 밀고를 했는지 극장에 가서 놀다 나오는데 경찰이 백차로 막았다. 그 때 밀항자를 신고하면 5만엔 주었다. 그래서 그것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다. 주로 한국 사람이 밀고한다. 일본 가서 돈도 못 벌고 죽도록 고생만 했다. 해녀는 제주와 일본을 왔다 갔다 한다고 들었다. 대마도 가서 물질하고, 일본에는 2월에 갔다가 8월에 제주로 돌아온다는 얘기 있었다. 일본 가서 "3년 안에 돈 벌지 못하면 돈 못 번다"고 했다. 말 모를 때는 쓸 줄도 몰라서 제주로 송금할 수 있는데, 3년 정도 지나 말 알고 지리 알게 되면 돈 다 써버리기 쉽다. 일본은 마트에서 반찬도 팔고 모든 것이 편리하고 놀기도 좋다.

B8 일본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하는 것이 늘 걱정이었다. 1년 정도 지나니까 단골손님도 많이 알게 되어 돈을 벌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니 한국에 다녀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 때 일본도 지금의 한국처럼 불황이었지만 허드렛일을 할 사람은 귀했다. 그런 면에서는 허드렛일을 해줄 외국인이 필요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말도 모르고 불편했는데, 3년 가까이 생활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돈도 보이기 시작하고, 일본에서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 때부터 돈 벌어서 제주로 보냈는데 은행이나 우편으로 붙일 수 있었지만, 미용재료상이나 식당을 통해 돈을 부쳐주는 루트가 있어서 그 쪽을 이용했다. 일본에서 전화 한통화만 하면 일본 측에서는 일본 돈을 받고, 한국 측에서는 그 날 시세로 계산해서 한국 돈으로 지불을 해주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은행이 하는 일을 대신한 것이다. 처음에는 아는 사람에게 부탁했었다. 대부분이 한국 사람들이 이용하는 미용실과 식당이었다. 난 눈썹문신도 했다. 결혼 전부터 부산에서 10년 정도 미용일을 했다.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냥 미용하는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다. 나중에는 북쪽으로는 삿뽀로(札幌)까지 남쪽으로는 마츠야마(松山)까지 갔다. 2년 반 만에 제주에 한번 들어왔다. 일본 돈 10,000엔이면 한국 돈 60,000원 정도했다. 그 때까지 저축한 것이 한국 돈 3,000만원 정도였다. 한국에서라면 어림도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빚만 졌을 것이다. 동생이 돈 관리를 해줬다.

나중에는 원룸을 얻어서 낮에는 피부 관리[59]를 하고, 밤에는 머리손질을 해주었다. 머리손질은 야매[60]로 한 것이다. 머리손질하다 보면 동이 훤하게 틀 때도 있었다. 돈 쓸 시간도 없이 돈을 벌었었다. 하루 10만엔 정도 벌었다. 그 때는 피부 관리 해주고 월급타면 한국으로 돈을 보내지 않고, 낙찰계를 10군데 정도했다. 2~3년간 했는데 계가 깨졌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다. 보통 사람들은 이자를 많이 내고 먼저 돈을 타가고 난 급히 돈 쓸 일이 없었으므로 늘 이자가 많이 붙는 마지막 번호를 가졌다. 계를 2~3개하면 그 이자 돈으로 월세와 세금을 내고도 생활비가 된다. 그

59) 정해진 몇 사람에게 피부관리를 해주고 월급을 받았다.
60) 일본말 '闇(야미)'를 이르는 말로서, 여기에서는 불법영업행위를 말한다.

돈을 날리지 않았으면 한국에서 빌딩을 샀을 것이다. 그 때 타격이 컸다. 일본 돈으로 1,000만엔 넘는 돈을 손해 봤다. 환율이 10배가 넘을 때이다. 한국에서 IMF터지면서 환율이 14배 정도까지 할 때다. 일본에서는 5년 반 정도 살았다.

B그룹의 직업은 플라스틱 공장 근로자, 고무공장 근로자, 제화공, 파칭코 종업원, 러브호텔 종업원, 식당 종업원, 미용업 등 다양하다. 다양한 직업만큼 수입에 있어서도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B그룹의 도항시기가 1965년~1990년까지로 그 기간이 광범위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JEJU NATIONAL UNIVERSITY · SINCE 1952 · 제주대

# Ⅴ. 귀국과 정착

p6의 A그룹의 대부분은 부모와 함께 해방을 전후해서 귀향했다. 해방 전에 군대환으로 귀향하거나, 해방 후에 선박업을 하는 사람의 배로 귀향한 경우가 있었다. A1은 조부가 돌아가시자 16세에 귀향하여 조부모가 마련해준 돈으로 밭을 구입해서 부모와 함께 농업에 종사하다 32세에 철원 금화에서 5년간 군대생활을 했으며 화랑훈장을 받았다. 그 덕분에 본인은 현재 정부로부터 월 12만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자녀들은 병원비의 60%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 A1은 제주에 있었다면 공부할 여건이 못 되었을 것이고, 일본에 가 학업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A3의 부친은 일본에서 와이셔츠 공장을 경영하여 1930년 무렵 염돈에 학교를 세웠다. 지금의 초등학교의 분교 같은 것이었다고 한다. 학교가 멀어 공부하기 힘든 염돈, 강정, 도순, 하원 등의 부락사람들을 위해서 세웠다. 충청도에서 모셔 온 이영희 선생님과 봉개의 이석주 선생님이 강의를 했다. A3은 일본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남편과 결혼해서 연탄가게를 운영하여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했다. 일본에는 그 때 도항했던 친척들이 남아있어서 계속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A5의 부친은 일본 유학 후 해방직전에 들어와 공무원과 교사생활을 하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재직하다가 1949년 4·3사건 때 현직 검사로서 고문받았다. 양손을 뒤로 묶어 천정에 매달았기 때문에 양어깨가 빠졌다. 그로 인해 47세에 사망했다. A5는 부친의 뜻을 이어받아 정치계에 투신하여 정부 차원에서 4·3의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제주 4·3사건 진사보고서'가 채택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A6은 귀향 후 농사와 옹기 만드는 일에 종사하며 살고 있다. 일본을 특별히 외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냥 이웃 마을처럼 가까운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A7은 유학 중에 제주로 들어와서는 다시 일본으로 가지 않고 전라남도[61]에서

61) 행정구역상 1945년까지 제주도(濟州島)는 전라남도 소속이었으나,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어 도(道)로 승격

국세과 공무원시험을 보고 합격하여 해방될 때까지 1년 동안 공무원생활을 했다. 해방이 되자 일제강점기 공무원은 무효처리 되었다. 다시 공무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교직생활에 몸을 담았다. 한국전쟁 때 육군으로 입대했는데 그 당시 제주사람은 전부 11사단이었다. 군대생활은 8년이었고 보병학교 원자력계에  있었다. 제대하고 복직해서 교육청 장학사로 근무하다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직을 했다. 유학의 경험을 되살려 후학양성에 힘써왔다. 서호 마을은 오사카청년회의 지원으로 해방 전에 제주에서 제일 먼저 수도가 가설되었으며 해방 후에 생겼지만 전기시설도 제일 빨랐다고 한다.

A8은 화가인 남편과 함께 해방을 맞이하여 제주로 왔다. 남편은 서울 서대문 보인상고, 부산여상, 춘천사범학교 등에서 미술교사로 근무했다. 제주에 내려와 남편은 기록으로 남은 전시만도 4번을 했고, 그 외에도 여러 번 전시를 했다. 제주일고, 제주일중, 제주여고의 미술교사로 재직했다. 교사의 월급이 적어 A8도 장사를 했다. 술 좋아하고 늘 그림만 그리던 남편은 72살에 사망했다. 외도는 외도출신 재일제주인의 도움으로 다른 동네보다 빨리 전기, 수도를 가설했다. 일본에서 20년 이상 전구공장을 하던 부친은 직업병으로 인하여 귀향했다. 귀국 시에 일본에서 영장(靈葬;葬禮)도구를 사 가지고 와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빌어다 썼다.

p6 A그룹의 도항자들은 선진문물 견학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귀향해서는 교육계와 정치계에 뛰어들어 제주사람들을 위해 봉사해 왔으며, 그 외에도 농업이나 상업활동 등을 하면서 보다 진취적인 삶을 살아왔다.

B그룹은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자수를 하거나 밀고를 당해 귀향했다. 밀고를 당한 불법체류자들은 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들은 수용소를 거쳐 강제 귀환했다.

B1은 귀향할 때에 일본 돈 600만엔[62] 정도를 가져왔다. 가정살림도 전부 이삿짐으로 가져왔다. 전기밥솥, 고다쓰, 석유난로, 그 때 텔레비전 흑백, 칼라 2대

---

되면서 1946년 8월 1일부터 제주도제(濟州道制)가 실시되었다.

62) 면담대상자 중에서 '밀항'으로 갔다가 밀고를 당해서 귀향하는 경우든, 자수를 해서 귀향하는 경우든 모두 본인이 모아서 가져오게 되는 현금에 대해서는 당시에 일본 측에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귀향할 때 가져오게 되는 현금과 물품을 전부 보여주고 그대로 가져올 수 있었다고 한다.

가져왔다. 제기를 포함해서 그릇은 어마어마하게 가져왔다. 600만엔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사업을 해서 경제적 기반을 튼튼히 했다. B1은 지금도 '청소년선도위원'을 위해 일주일에 한번은 4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

B1 우리는 밀항으로 가서 집도 사고 아이들 공부도 시켰다. 지금도 김녕 사람들은 재일교포가 보내준 자금으로 장학회 만들어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 장학금 준다. 일본 다녀와서 건물사서 장사를 했다. 지금은 나와 함께 일본에 갔던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식당을 하며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

B2는 귀향할 때 일본 돈 100만엔 정도를 가져왔다. 그 돈으로 땅도 사고, 집터도 샀다. 이삿짐은 전부 비행기로 실어 왔다. 전자품 전부, 미싱, 공업용 기계 등 미싱에 딸린 것은 쇳덩어리도 전부 가져왔다. 부산에서 팔았으나 별로 돈은 되지 못했다. 후에 여권을 만들어 갈 수 있었지만, 13년 만에 귀향해서는 그런 생각도 잊어버리고 살았다. 배탄 경험은 얼마 되지 않지만 고기 낚을 줄 아니까 배를 사서 운영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가족을 두고 혼자서 3년 만에 다시 밀항을 했다. 비용은 13만원이었다. 도쿄로 가서 기술이 있으니까 다시 구두카피를 했다. 밀항으로 온 젊은이들을 조수로 쓰면서 일을 하니 수입이 좋았다. 4년간 도쿄에서 일하며 가족에게 돈을 보내주다가 밀고를 당했는데 일본에서 척추수술을 받게 되었다. 수술 후 통원 치료하는 1년 동안에는 밀항자이지만 경찰서 같은 데에 불려가지 않았다. 현재는 도에서 하는 청소년선도와 관련한 일을 한다. 오후에 현장에 나가 4시간씩 근무한다. 그는 자신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는 것을 보람으로 알고 있다.

B3은 밀항하여 일본에서 30년 가까이 생활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돌아왔다. 면담대상자 중에서 체류기간이 가장 긴 케이스이다. B3이 이처럼 일본에서 장기체류할 수 있었던 데는 일본 측에서도 불법체재인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한국처럼 3K업종[63]에 종사할 사람

63) '3K업종'은 한국에서 말하는 3D업종이다. '3D업종'란 영어로 힘들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한(Dangerous) 업종이다. 일본어로 힘들고(기쓰이-きつい), 더럽고(기타나이-汚ない), 위험한(기켄-危險) 업종이다. 세 단어의 첫 글자가 모두 '기'로 시작되기 때문에, '3D'와 마찬가지로 첫 글자를 따서 '3K'라 한다.

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과 일본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지내고 있다.

B3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귀국했다. 일본 입관에 가서 귀국심사 하는데 몇 분 안에 금방 끝났다. 다른 사람들은 몇 시간 걸린다. 일본에서 보험카드 뗌에 30년간 세금 낸 것 가져갔더니 금방 통과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이런 밀항자 없다고 했다. 패스포드 만들기 위해서 영사관에게 돈을 주었다. 패스포드가 나오고 중앙정보부에서 조사하는데 수사과장이 금방 알아봤다. 내빈실로 통과하여 나리타공항을 출발하여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B4는 귀향해서 곧바로 관광업계에 발을 들여 놓았다. 밀항하여 습득한 일본어를 십분 활용해 제주가 관광도시로 거듭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아직도 일본인 관광객 전문가로서 활약하고 있다.

B4 밀고를 당해 경찰서에 갔을 때 형사가 때리려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조센징이라고 하는 것이 기분 나빴다. 그래서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다. 일주일 만에 검찰로 넘어갔다. 담당 검사가 일본에서 진술한 것은 한국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한국에서 온 경위 등을 솔직히 얘기하라고 했다. 도쿄법대 나온 유명한 검사였던 것 같다. 나이 많은 직원에게도 절대 존칭어 쓰지 않았다. 그러나 나에게는 너무 친절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난 일본도 좋지만 한국이 좋으니까 언제든지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했다. 단지 일본말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그 때는 한국의 기생관광이 한창이던 시절이었다. 형사가 한국말로 “한국 사람이 일본에 와서 돈 벌어 가고, 기생관광해서 돈 벌어 들인다”고 했다. 그 말이 기분 나빠서 검사에게 형사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랬더니 검사가 형사를 부르더니 사과하라고 했다. 난 밀항을 처음 왔지만 여러 번 와서 걸린 사람도 있었다. 조사 끝나고 얼마 있지 않아 귀항했다. 재일교포가 기증을 많이 했지만, 도일했다 돌아온 사람들의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재일교포는 많은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제주에 기증하지만 도항했다 돌아온 사람들은 거의가 돈을 벌어왔다. 그 것이 클 것이다. 90년대 제주도에서 일본인 관광객의 안내를 담당했거나 관광업계 종사자는 대부분이 도항했던 사람들이다.

B5는 밀항하여 모은 돈으로 75년도에 집사고 81년도에 자수해서 들어왔다. 귀향할 때는 300만엔 정도 가져왔다. 이삿짐도 전부 가져왔다. 한국 돈으로 1,000만원 정도였다. 당시의 환율은 10,000엔에 32,000원 정도였다. 제주에 와서 그 돈으로 사업을 해서 기반을 잡았다. 밀항하여 겪었던 기억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며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여권법위반에 해당되는 B7은 밀항한지 1년 만에 밀고를 당하여 귀향했다. 짧은 기간이지만 엄청난 고생을 하고 돌아온 후 도항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다. 도항 당시의 단체 사진도 있었으나 너무나 고생이 심했던 기억을 되살리고 싶지 않아 불태워 버렸다고 한다.

B7 파출소 가서 1주일, 경찰서에서 10일, 교도소에서는 한국말만 했더니 통역[64]을 붙여줬다. 한 달 살고 재판받으러 오사카 어딘가에 5층 건물에서 재판[65]을 받아 45일 영창 살았다. 감방장이 45일 후에 재판 받고 돌아올 때 수갑 채우지 않으면 그냥 그날 나간다고 했다. 수갑 채우지 않고 들어와 그날 저녁 7시 되니까 입국관리청에서 헌병 같은 사람이 왔다. 입국관리청에서 10일간 조사를 받아 오무라수용소[66]로 갔다가 부산에서 다시 조사받았다. 1주일간 50명이나 되는 형사에게 조사 받았다. 반공법위반이라 해서 부산 내 각 경찰서로 20명씩 배치하여 재판까지 보호한다. 밀항 간 사람은 재판 없다. 밀항자 단속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풀어준다. 난 여권법위반이라서 제주에서 벌금[67]을  50만원 냈다. 30만원 내는 사람도 있었는데 난 50만원 냈다. 연말이라 목표금액대로 다 내야했다.

B8은 일본에서 번 돈으로 작은 빌딩을 사서 집세를 받아 생활하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에 관한 학업 중에 있으며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의 상담자 역할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이나 청소년들을 위해 일할 계획이다.

B8 한국에 돌아와 보니 마음이 너그러워 졌다. 일본문화를 이해하게 되니까 마음도 여유로워졌다. 한국 사람들 일본 가서 대부분이 콩나물 공장에서 일하거나 호텔 등에서 청소한다. 일본은 도로공사를 밤중에 하는데 그 인부들이 거의 한국 사람들이다. 불쌍한 사람들 많다.

p6의 B그룹은 밀고에 의해 강제로 귀향한 사람들이다. B1, B2, B4, B5, B6, B8은 일본에서 어느 정도 돈을 벌어, 그것을 자본으로 하여 경제적으로 윤택한

64) 통역원은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서 불법입국자로 걸려서, 6년 징역 사는 동안에 영창 안에서 일본말을 배워 감방장이 되었다고 한다.

65) 재판에서 집행유예 1년, 징역 2년의 선고를 받았다. 무료변호사에게 “나는 일본에 와서 잘못한 것 없다. 여권을 가지고 왔다”고 했다. 재판이 끝나니까 오후 5시경이었는데 수갑을 채워서 한사람 당 경찰 한사람이 따라 다녔다.

66) 오무라 수용소에서는 밥도 해먹을 수 있고, 수용소 안에 식당이 있는데 밥을 해먹으려면 식품비를 내야 한다. 한국에서 오무라 수용소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들었다.

67) 30만원 내는 사람도 있었다.

생활을 하게 되었다. 반면, B3와 B7은 경제적인 면에서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일본에서 번 것은 일본에서 거의 소비하고 돌아온 경우이다.

# 맺 는  말

지금까지 제주인의 도항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제주사람들의 일본 도항은 제주사회에 경제적·문화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도항이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커다란 흐름을 타며 끊임없이 이어져온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언더그라운드에 남아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도항이 개인적인 경험으로만 간주되어 왔으며, 또한 미시사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까닭이다. 한편으론 도항자들이 일본에서 3D업종에 가까운 일들을 수행하면서 겪은 자신들의 삶의 모습이 공개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이다. 도항자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도항을 '놀난 일'[68]이 아닌 '부치러운 일'[69]로 여기고 있었다. 도항에 대한 이런 개인의 심리가 도항자들의 내면에 비교적 무겁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역사란 시·공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혹은 시·공간적인 인간의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도항이 비록 개인적으로는 미미하다고 생각되거나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제주사회로 볼 때 역사적인 인과관계를 갖게 되는 중요한 삶의 흐름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도항'이란 어떤 면에서는 극히 일반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에 불과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사회공동체적으로는 총체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사람에게 바다는 '장벽'이라는 불안요소이기도 했지만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돌파구이기도 했다. 밀항에서 보듯이 제주사람들이 가로막힌 바다를 넘을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이 일자리가 있는 이웃이고 연고지가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즉 도항은 제주에서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취해진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으로의 이동이었고 동시에 제주보다 경제가 발달한 곳으로의 진출이었다.

나는 본고에서 도항의 방법을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도항증을 가지고 여객선은 타고 도항한 후 일정 체류기간이 끝나면 귀향하는 것을 '합법적 도항'이라고

68) '놀난 일'이란 '내세울만한 일'이라는 의미의 제주방언이다.
69) '부치러운 일'이란 '부끄러운 일'이라는 의미의 제주방언이다.

하였다. 하지만 이 '합법적 도항'은 시대상황이 일제강점기였다는 것, 그리고 그 때의 공간이동이 일제 식민지법을 적용받는 국내 이동, 즉 내지(內地)이동이었다는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자주권이 없는 일본 식민지하에서 제주에서 일본으로의 도항은 내선일체(內鮮一體)라는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당시는 국내에서의 이동과 다를 바 없었으므로 이것을 편의상 '합법적 도항'이라고 한 것이다.

'비합법적 도항' 이라는 개념은 해방 후 자주권이 있는 국가에서 국경이 구분된 후의 도항이라는 점에서 일제강점기의 '합법적 도항'과는 상황이 아주 달랐다. 이때의 도항은 시대적으로 단기 비자가 주류였던 조건에서 도항목적 자체가 돈을 벌기 위해 장기적인 체류를 요구하는 자본주의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이 많이 드는 밀항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즉 해방 후의 합법적 도항은 유학이나 여행 등의 명료한 목적이 있을 때 가능했기 때문에 출·입국절차가 매우 까다로웠다. 그래서 제주사람들은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비합법적 도항인 밀항을 택하여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일을 가리지 않고 불법체류라도 감내했던 것이다.

특히 밀항이 성행한 또 다른 이유는 이미 제주사람들의 친·인척 연고지가 오사카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밀항만 성공하면 불법체류가 용이했기 때문이다. 까다로운 출·입국 절차 없이 누구라도 밀항에 따른 비용만 있으면 당국의 눈을 피해 도항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제주사람들의 일본 도항을 얘기할 때 제주에 대한 재일제주인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도항했다 귀향한 도항자들에 의해 파생된 제주공동체의 사회·경제·문화적인 영향을 간과할 수도 없다.

우선, 일본에 정착한 재일제주인의 제주에 대한 물적 기증과 일본에서의 도항자에 대한 협력은 제주와 재일제주인과의 연대, 그리고 제주사람들과 재일제주인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해 왔다. 불법체류를 마다하지 않고 그들이 저축하여 보내온 현금과 수시로 보내오는 물품을 통해서 혈연적 애정과 가족주의, 한 사회 공동체의 본향의식(本鄕意識)[70]을 엿

70) '본향'은 제주무속의 마을수호신을 의미하거나 마을 공동체의 신당을 말한다. 여기에서 '본향의식'은 사회·역사적 공동체적 관점에서 개인에게 있어서는 한 사회의 역사적인 근원과 인간의 원초성을 아우르고,

볼 수가 있었다.

일본에 도항했다가 제주로 돌아온 귀향자들의 제주에서의 삶은 일본에서 겪은 경험이 밑거름이 되고 있다. 면담대상자의 대부분은 도항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지만 재일제주인의 도움과 자신의 피나는 노력으로 적어도 돈을 벌기 위해 도항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귀향해서 '합법적 도항자'들은 도항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 상업에 종사하거나 정치인과 교사가 되어 제주사회에 공헌하며 살아왔다. 특이한 사례로는 심방으로서 한·일 양국을 17년간 넘나들며 도항자들과 재일제주인, 심지어 일본인의 애환을 달래준 경우도 있었다. 비합법적 도항자들 역시 농업, 상업에 종사하거나 일본어를 십분 활용해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는가 하면 현재 학업을 계속하는 등 매우 진취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미 일선에서 물러난 경우에는 사회봉사활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해저에 가라앉아 있는 보물을 끌어 올리듯 조심스럽게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제주사회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노고는 오늘날 풍요로운 제주사회의 밑거름이 되었다. 밀항을 통해 현실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간 그들에게 존경을 표한다. 도항은 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또한 제주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도항이 지금은 비록 과거와 같이 밀항비용을 지불하고 배에 몰래 숨어드는 방법으로 행해지지는 않고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도항은 오늘날 형태만 다를 뿐 여전히 선진문물을 동경하거나 환율이 높은 선진자본주의 시장으로 진출하고자하는 목적에는 변함이 없다. 지금까지도 제주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보다 나은 일본으로의 도항을 멈추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러한 원인이 작용하는 것이다.

---

공동체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역사적인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회적인 의식이다.

# 참 고 문 헌


강만길(1984),「韓國近代史」, 創作과 批評社.

강만길 外(1988),「한국현대사회운동사전」, 열음사.

강재언(2005),「재일한인의 갈등과 도전」, 고성중 옮김, 북제주문화원.

고광민(2004),「濟州島浦口硏究」, 도서출판 각.

고선휘(1996),「在日済州島出身者の生活過程　關西地方を中心に」, 新幹社.

고선휘(1998),「20世紀の滯日済州島人一その生活過程と意識」, 明石書店.

고선휘(2007),「일본으로 돈벌이 간 제주도 사람」, 고성중 옮김, 북제주문화원.

김봉옥(1990), 「제주통사」, 제주문화.

김성례(1999), "근대성과 폭력:제주4·3의 담론정치",「제주4·3연구」,역사비평사.

문경수(2001), "4·3사건과 재일 한국인",「4·3과 역사」, 제주4·3연구소 편, 각.

석주명(1968),「濟州島 隨筆」, 서울: 寶眞齋印刷所.

이기완 외(2006), "일본의 민족정책",「현대 일본의 정치와 사회」, 매봉.

이진희 외(1998),「한일교류사」, 옮긴이 김익한 외, 학고재.

임종국(1982),「日帝侵略과 親日派」, 靑史.

장삼식(1988),『漢韓大辭典-大字源』, 서울 : 삼성출판사.

전은자(2007), "바다를 건넌 사람들, 제주인과 도항문화",「제15회 국제학술대회」, 한국일본근대학회, pp235-241.

전은자(2007), "기억의 문화, 제주도항사1",「삶과 문화」, 26호, 제주문화예술재단. 일신옵셋인쇄사. pp55-61.

정재정(2006), "한일 국교정상화조약, 무엇이 문제인가",「한일관계 2천년-보이는 역사 보이지 않는 역사」, 한일관계사학회 편, 경인문화사.

정혜경(2006),「조선인강제연행·강제노동1-일본편」, 선인.

정혜경(2001), "1930년대 초반 오사카지역 협동조합과 조선인운동",「한일민족문제연구」, 한일민족연구회.

在日本濟州道民會編(1993),「日本의 濟州魂-在日本濟州道民會 30年史」, 在日本濟州道民會.

제주노동상담소 일하는 사람들(1992),「제주경제와 지역노동실태」, 새길.

제주도·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2004),「구술로 만나는 제주여성의 삶 그리고 역사」, 파피루스.

제주도청(1999), “濟州島勢要覽”, 「濟州島의 經濟」, 홍성목 역, 제주시우당도서관.

泉靖一(1966),「濟州島」, 東京大學出版部.

우에다 코오이치로오(上田耕一郎)(1999),「濟州島의 經濟」, 홍성목 역, 우당도서관.

카와이 아츠시(河合 敦)(2004),「하룻밤에 읽는 일본사」, 원지연 옮김, 랜덤하우스코리아(주).

杉原達(1999),「越境する民」, 新幹社.

마수다 이치지(桝田一二)(2005),「濟州島의 地理學的 硏究」, 홍성목 역, 제주시우당도서관.

桝田一二(1976),「濟州島の 地理學的 硏究」, 弘詢社.

山田昭次(2005),「朝鮮人戰時勞働動員」, 岩波書店.

W.G. 비즐리(2004),「일본근현대사」, 장인성 옮김, 을유문화사.

<日本語抄錄>

# 済州人の渡航に関する研究

田 殷 子

済州大学校 通訳大学院 韓日科

指導教授 李 禮 安

三災の島として知られる済州では、早くから生存のための渡航が始まった。済州の人々は窮余の一策として交易を必要とし、労動力の交換が唯一の代案であった。日本は地理的に済州に近いというだけでなく、より重要なことは、日本には朝鮮半島より先進的な産業が活発に稼働しており、済州の人々にとって、現金を得ることのできる魅力的な労働市場であった。このため、済州の人々の多くが日本に渡航、定着し、あるいは帰郷したのである。

本稿は、既に長い歴史を持つ済州の人々の日本渡航に焦点を当て、これを水面下から引き上げることに意義を置いている。研究の方法としては試験的な要素を基本とし、日本に渡航し、帰郷した調査対象者を通して、彼らがどのような理由で、どのような経路で渡航したのか、また、日本での生活と、帰国後の済州での生活にどのような変化があったかについて考察した。

日本に渡航し、帰郷した対象者20人に直接会い、インタビューを実施、その中から最終的に16人を研究対象とした。16人のうち日帝時代に渡航した経験のある8人を「合法的渡航者(Aグループ)」とし、1945年の解放から90年代にかけて渡航した8人を「非合法的渡航者(Bグループ)」として分類した。

済州の人々の渡航が日帝時代に多い理由はいくつかの観点から考えられるが、第1次世界大戦の特需で好況が続いた当時の日本が、労働力を確保するために労働力誘引策を取ったことが挙げられる。経済的な貧窮から逃れようと渡航した済州の人々にもたらした現金所得の効果は、さらに多くの労働力を再誘引する根拠になった。

インタビューを通して、Aグループの渡航者は両親や兄弟が既に日本で生活しており、職業を持っている場合や留学中であったことが分かった。Aグループははっきりとした目的を持たず、両親や兄弟の勧めで渡航していた。これに対してBグループは「金を稼ぐ」という目的を持って渡航している。彼らの多くは経済的な困難から密航した不法滞留者であったため、職務質問や密告で逮捕され送還されるまで長期間滞留することを目的に渡航した。

渡航地としては、16人のうち12人が大阪であった。その理由は、1945年の解放以前から相当な数の済州の人々が大阪で生活しており、その縁故で多くの人が大阪に渡航したためである。言い換えれば、済州と大阪の間には解放前から既にソーシャルネットワーク(Social Network)が形成されており、これを通して円滑な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取られていたことが分かる。

Aグループは家族をつてに渡航しているが、Bグループはブローカーの仲介で渡航し、渡航後、日本に住む親戚と連絡を取っていた。主に密航というルートで渡航したBグループは、密航に成功すると日本に住む親戚の助けを借りて寝泊まりする場所を見つけ、職に就くことになるが、彼らは劣悪な労働環境と不当な勤務条件にさらされていた。同じ時間、同じ仕事をしても日本人や在日韓国人より安い賃金が支払われた。しかし、密航者という立場では、不当な勤労時間や賃金を訴えることもできず、黙々と働くより他に方法はなかった。

Aグループは学業及び先進文明の修得という効果を得たが、一方で日本人の「朝鮮人軽視」に対する深い記憶を残していた。「非合法的渡航者」であるBグループは、子供の教育費や住宅購入費など、ある程度の経済的効果を得るに至ったが、日本での言葉の問題や密告に苛まされた。言葉の問題は時間が経つにつれ少しずつ解決されるが、密告は渡航から帰郷まで常につきまとう影のような不安要素であった。

調査した対象者のほとんどが、在日済州人の助けと自らの努力で当初の目的を達成した。帰郷後、Aグループは、農業および商業に従事、あるいは政治家や教師になり済州社会に貢献して来た。Bグループもやはり農業、商業、観光業に従事、または学業を続け、現在はボランティア活動をしながら生活をしている。済州の社会において相当な比重を占める彼らの目に見えない苦労は、今日の豊かな済州を築く糧となった。渡航は個人の問題であると同時に、済州社会の問題でもあるのだ。

在日済州人がこれまで故郷に多くの物質を寄贈し、また日本で渡航者に援助、協力した

事実は、済州と在日済州人の連帯、そして済州の人々と在日済州人とのパートナー関係を維持する重要な機制の役割を果たして来た。

形態こそ異なるものの、先進文化に憧れ、または高い外貨を求めて資本主義市場に進出するという渡航の本質は今日も変わりはない。済州の人々が、今も経済的に豊かな日本へ渡航し続けるのも、このような理由からではないだろうか。

JEJU NATIONAL UNIVERSITY · SINCE 1952 · 제주대